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삶길앎
Life Long Learn

SLEI-2022-A-005
51-B553537-000001-01

서울시 평생학습 교육경비(장학금) 지원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2022. 09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서울시 평생학습 교육경비(장학금)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2. 09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시 평생학습 교육경비(장학금) 지원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09월

연 구 기 간 : 2022.04.23.~09.23
연 구 기 관 : 중앙대학교
연구책임자 : 이희수(중앙대학교)
연 구 원 : 임경수(건국대학교)
이지영(고려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제학(중앙대학교)
연 구 협 력 : 김혜영(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하동진(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요 약

1. 연구의 개관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구감소시대의 교육적 당면 과제

- 서울시는 노령사회·축소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활력이 감퇴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유인마저 취약해지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 유인정책을 필요로 함
- 이러한 정책 가운데 성인교육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정책은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이상준, 2021), 즉 생산인구 부족 등으로 일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민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임

○ 평생교육정책의 변화와 시대적 반영

- 서울시는 세계와 국가의 평생교육정책 변화에 발맞춰 「서울미래교육비전 2030」에 서울시민 장학금을,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에 서울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을 명시한 바 있으며, 민선8기 서울시는 이를 공약사업으로 실현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평생학습 장학금을 통한 학비 보조'를 추진하게 되었음
- 본 연구는 이상의 정책적 변화를 배경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교육경비(장학금)의 실체적 내용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음

□ 연구 목적

○ 평생학습 교육경비 요구 수렴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서울시가 평생학습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
- 평생학습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취약계층이 갖는 학

습의 어려운 점과 장학금 지원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지원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 평생학습 교육경비 정책 설계

- 두 번째 목적은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평생학습 명목 교육급여의 실체와 정의, 그 대상과 목적을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임
- 이를 통해 시민의 교육급여로서 평생학습 장학금 지원 정책의 기획 방향과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 평생학습 교육경비 정책 실행 방안 마련

- 세 번째 목적은 평생학습 교육경비의 자원 확보 및 관리, 장학금 지원 방식 등 실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이는 구체적으로 경비 사용처 및 학습 경로, 경비 지급 및 전달체계 등 공급망 구축 방안을 포함하게 될 것임

□ 연구의 이론적 고찰

○ 본 연구는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정책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3가지의 이론적 관점을 도입하고자 함

○ 그 첫 번째로 노동경제학적 관점은 지방정부로서 서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인적자본 투자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외부효과와 사회적 효용을 살펴보는 데 있음

○ 두 번째 연구 관점은 평생교육학적 접근으로 시민들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정부의 정책 지향점을 살펴봄

○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학적 관점은 사회서비스의 성격을 갖는 평생교육의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지원을 통해 복지 수혜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계점을 살펴보는 것임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정책현황 조사

- 첫째, 평생교육경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범위와 현황를 조사함

- 둘째,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내용을 분석함
- 셋째,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경비 지원 사례를 조사함
- 넷째, 서울시에서 적용 가능한 평생교육경비 지원 범위 및 대상을 분석함

○ 요구 분석

- 첫째,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 둘째, 서울시민의 평생교육경비에 대한 요구를 분석함

○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 정책 설계

- 첫째, 평생학습 교육경비의 개념 정의 및 정책 규정을 시도함
- 둘째, 서울시에 특화된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함
- 셋째,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를 도출함
- 넷째, 사업 착수시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향 및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다섯째, 사업의 재정 규모와 연동하여 재정계획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함

○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 정책 실행 방안

- 첫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둘째, 평생학습 교육경비의 세부조건 및 사업실행 방법을 제안함

2. 평생학습 교육경비 현황 분석

□ 평생학습 교육경비 유사 사업 현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 학습자 스스로 교육수준,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평생학습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금액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자기계발과 삶의 질 개선 도모에 목적이 있음

- 사업예산은 2018년에 총 2,391백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 사업예산은 총 14,07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0.6% 증가하였음
-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는 총 72,216명이며 39,000명(54.0%) 발급하였음. 2019년부터 '중위 65% 미만' 대상이 포함되었으며, 2022년에 해당 대상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음
- 평생교육바우처 선정자 연령은 40대, 50대, 30대 순으로 중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서울시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는 총 13,507명으로 전국대비 '18.7%' 비율으로, 경기도(22.2%) 다음으로 차순위로 높았음

○ 유사 사업 비교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일부 대상 제외), 1명당 300~500만원 지원하고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사업임.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원유형은 Ⅰ유형과('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있음. 지원대상은 15~69세 구직자이며, Ⅰ유형은 3백만원까지(구직촉진수당), Ⅱ유형은 최대 170만원까지(취업지원비용) 지원하고 있음
- 평생교육바우처와 주요 정부 부처 사업을 비교하면, 공통점은 '개인주도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자 지원'이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소외계층 성인에게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와는 '전자식 바우처로 제공' 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 차이점은 사업 목적이 평생교육바우처는 넓은 의미에서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이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에 목적임. 지원 강좌는 평생교육바우처는 다양한 평생교육분야 학습이 가능하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이나 취업지원서비스에 제한됨. 지원 내용은 평생교육바우처는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등 교육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교육비 혹은 취업수당(구직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일자리 정보 탐색방법, 면접기법, 채용박람회, 일자리 소개, 동행면접 등)를 제공하고 있음. 사용 기간이 평생교육바

우처는 사업 공지 해당년도까지 이용가능하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서울시 평생교육 기관 현황

○ 주요 직업능력향상 교육기관 현황

- 서울시에 직업능력향상 주요 교육기관의 대상층을 살펴보면, 기술교육원은 청년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층이 주요 타겟이었음
- 기관유형이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 상당수 치중되어 있으며, 남성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열세하였음. 지역별로 노원구(6개소), 강서구(4개소)가 가장 많았고 도봉구, 성북구(각 1개소)는 적었음

○ 평생교육기관 현황

- 서울시의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관련 시설은 총 1,055개소로(2018년 기준), 동 자치회관(37.2%), 복지관(15.2%), 도서관(11.9%), 문화예술체육시설(10.9%)이 많았음. 이에 비해 가족관련시설(2.1%), 여성관련시설(2.8%), 직업훈련시설(4.7%)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 서울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현황

- 서울시의 바우처 사용기관은 총 592개소로(2021년 기준), 비형식 평생교육시설 수 대비하여 32.7% 비율임
- 비형식교육시설 수 대비 바우처 사용기관 비율은 서울이 가장 낮았음. 세종(122.2%), 울산(117.9%), 인천(109.3%), 경남(106.9%) 순으로 높았으며, 이에 비해 서울(32.7%), 경기(50.8%), 전남(53.9%), 충남(57.0%) 순으로 낮았음

□ 해외 평생교육 장학금 운영 사례

○ 싱가포르, SkillsFuture Credit(SFC)

- 만 25세 이상 싱가포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재정지원 사업임. 지원 금액은 1인당 S$500이며, 시민권을 유지하는 한 소멸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음
- 사용처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수강료 사용이 가능하며,

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기술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있음

- 신청은 학습자가 직접 SkillsFuture Credit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함.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수강과정명, 수강료, 증빙서 탑재 등을 통해 수강 정보를 입력한 뒤, 수강 이력을 제출해야 함. 이후 학습비 지원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학습비 지원 여부를 통보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스코틀랜드, 개인훈련계좌(Individual Training Account)

- 개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있음. 지원대상은 16세 이상의 영국 시민권자이면서 실업자,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200 파운드(약 29만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음
- 사용처는 '웹사이트(My World of Work)'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잇고, 직업센터 혹은 기술개발 전문가 등의 학습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은 개인이 직접 자신의 소득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받음

3. 평생학습 교육경비 요구 분석

□ 서울시 평생학습 참여 현황

○ 서울시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 참여율은 2021년 29.4%로, 2019년 50.0%이었음.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021년 29.0%, 2019년 49.1%이었음
- 평생교육 참여시간은 비형식교육은 2021년, 2019년 모두 88시간이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시간이 많았음
- 평생교육 자기부담 학습비는 2021년 31만원, 2019년 41만원이었음.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기부담 학습비가 많았음

○ 서울시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 실태

- 참여율은 2021년 12.9%, 2019년 16.9%이었음.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가구 소득이 클수록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직업관련 교육은 2021년 95시간, 2019년 55시간이었음. 연령이 낮을수록, 고졸, 비경활 상태에서의 참여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자기부담 학습비는 2021년 23만원, 2019년 24만원이었음.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부담하였음

○ 비형식교육 참여자의 외부 학습비 지원 실태

- 외부로부터 학습비를 지원받은 비율은 2021년 32.4%로, 2019년 20.9% 대비 증가하였음. 학력이 낮을수록, 월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외부지원 비율이 높았음

□ 평생교육바우처 참여 현황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현황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강좌 수는 평균 2.24개였음. 남성이 평균 2.45개로 여성(2.17개)보다 더 많은 강좌를 들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이 더 많이 들었음

- 평생교육바우처 수강시 추가 지불 비용은 평균 16만원 지불하였음. 여성(16.74만원)이 남성(14.61만원)보다 많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만 40~49세, 법정 차상위계층이 추가 지불 수강료가 더 많았음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요구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목적은 자기계발(39.9%), 자격취득(37.6%), 학력취득(12.4%), 교양교육(6.3%), 기타(3.8%)의 순으로 높았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층은 자기계발(1순위), 법정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은 자격취득(1순위)이 가장 큰 목적이었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은 자기계발(1순위), 고졸이하는 자격취득(1순위)이 가장 큰 목적이었음

- 평생교육바우처 수강 분야는 학력보완교육(39.3%), 직업능력교육(18.7%), 문화예술교육(16.7%), 기타(14.9%), 인문교양교육(8.3%), 시민참여교육(1.4%), 기초문해교육(0.7%) 순으로 많았음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전 평생교육 강좌 미수강 이유로는, 비용이 부담되어서(36.3%),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29.2%)가 가장 많았음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만족도

- 3개년 평균(2018년~2021년) 이용 만족도는, 지속적 이용 의향(4.60점), 서비스욕구도(4.54점),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4.30점), 타인 추천 의향(4.27점) 순으로 높았음. 이에 비해 지원금 적절성(3.04점), 이용기간 충분성(3.35점), 강좌/기관 정

보제공 충분성(3.43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평생교육바우처에 선정되고 이용경험에 대한 만족 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나 지원금, 이용기간, 강좌/기관 정보 등의 운영기준 제반사항 관련 만족 수준이 낮은 편이었음.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에 대한 항목별 만족 수준은 해마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원금 적절성에 대한 만족 수준은 2019년 대비 하락하였음
-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개선 필요사항은 교육기관 확대(42.6%)가 가장 많았으며, 지원금액 확대(14.8%), 홍보 및 안내(10.9%), 사용범위 확대 및 잔액관리(7.8%), 사용기간 확대(7.0%), 교육기관 관리(5.2%) 순으로 많았음

□ 평생교육바우처 전문가 FGI

○ 분석 개요

- 서울시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 시민 전문가(5인)및 교육경비 관계자(3인)를 대상으로 FGI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업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지원대상, 선발방법, 지원내용, 지원분야, 학습관리, 기관관리)을 단계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 내용

- (지원대상) 교육경비 지원 사각지대를 찾아야 하며, 특정 대상을 정하여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가 필요함
- (선발방법)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시행 1차년도의 사업 홍보가 특히 중요함
- (지원내용)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이 필요함
- (지원분야) 취·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학습관리) 전문적인 상담과 컨설팅 병행을 위해, 학습지원 관리 인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
- (기관관리) 교육 컨텐츠 질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함

4. 정책 방향 및 전략

□ 평생학습 교육경비 정책방향 설정

○ 정책수립 배경

- 재교육과 미래교육을 통한 위대한 리셋, 서울
  - 서울시민들은 변화된 노동과정에 맞게 새로운 숙련을 습득하는 재교육(re-skilling)을 받거나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 일하기 위해, 전보다 더 높은 숙련을 필요로 하는 숙련격차(skill gap)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숙련향상, 즉 미래교육(up-skilling)을 필요로 함(반가운 외, 2021)
  - 세계경제포럼(WEF)은 연장이 바뀌면 목수의 기술도 바뀌어야 하듯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숙련 유형이 급변함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은 고용상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고용기회를 극대화 해줄 보상적 경력과 성취적 경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Re-skilling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함
  - 인류의 문명사는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 교육과 기술 간 경주에서 이겨야 사회적 고통에서 사회적 번영으로 갈 수 있으며(Schleicher, 2016), 서울시는 시민들의 재교육과 미래교육을 통해서만 서울의 위대한 리셋(Great Reset)을 이룰 수 있음
- 시민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통한 공정한 교육의 미래, 서울
  - 환경과 기술적인 도전이 교차하는 시기에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재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내일의 교육은 사회 전체의 참여와 공헌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하는 데 두어져야 함
  -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는 지식공유제(knowledge commons)에 접근하고 기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모든 시공간에서 교육이 더욱 확장되고 풍요로워져야 함

○ 정책방향 설정

- 존재의 학습(learning to be)에서 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come)으로 전환
  - 서울시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동안 숙련향상 교육, 재교육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시민들이 변화를 주도적 기회로 활용, 시민역량 제고를 위해 모든 시민의 학습 참여 중요성을 증대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ILO, 2019)
  - 또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사다리를 복

원할 수 있도록 시민의 학습 선택과 책임감 강화, 학습취약계층의 참여동기 부여, 평생교육시장의 경쟁 촉진 등 꾀할 필요가 있음(OECD, 2019)

- 평생교육 바우처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된 사업 전개
  - 바우처 지원은 지원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추첨식으로 선정자를 선발하여 이용권을 발행하는 선지급 방식이다 보니 공공 서비스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책임성 부족, 바우처 사용기관인 교육기관들의 서비스 질 저하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1인당 35만 원 가운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평균 20만 2,945원에 그치고 있으며, 바우처 사업의 주요 목적에 해당되는 이용자들의 학력 향상, 사회참여 증가, 직업능력 향상 등 개인적·사회적 성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박윤수 외, 2021)
  - 또한 평생교육 바우처는 이용자들에 대한 상담 및 멘토링 기능이 없이 사용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방식으로 공적 서비스의 책임성을 부가하는 반면 사용기관에 대해서는 이용권의 부정사용과 기관 및 강좌 홍보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에서 제한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청정보 제공 충분성, 이용권 이용 용이성, 민원 처리 신속성, 담당자 전문성 및 지원 등에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서울시의 평생학습 교육경비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개선된 사업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 평생교육 바우처에서 시민 참여장학금으로
  - 참여소득은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참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지급 대상과 관련한 문제에서 논쟁의 여지가 적고, 노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작다는 점에서 정치적이고,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가 보다 수월함(한권탁, 2020)
  - 서울시 평생학습 교육경비는 시민들이 향후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노동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참여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에 해당되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되고 싶은 것이 가능하도록 기회와 자유를 부여하는 캐퍼빌리티의 확장(이상준, 2021)에 기여하게 될 것임
  -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자동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임노동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참여소득은 개인의 정체성, 소속감, 자아실현을 행위적으로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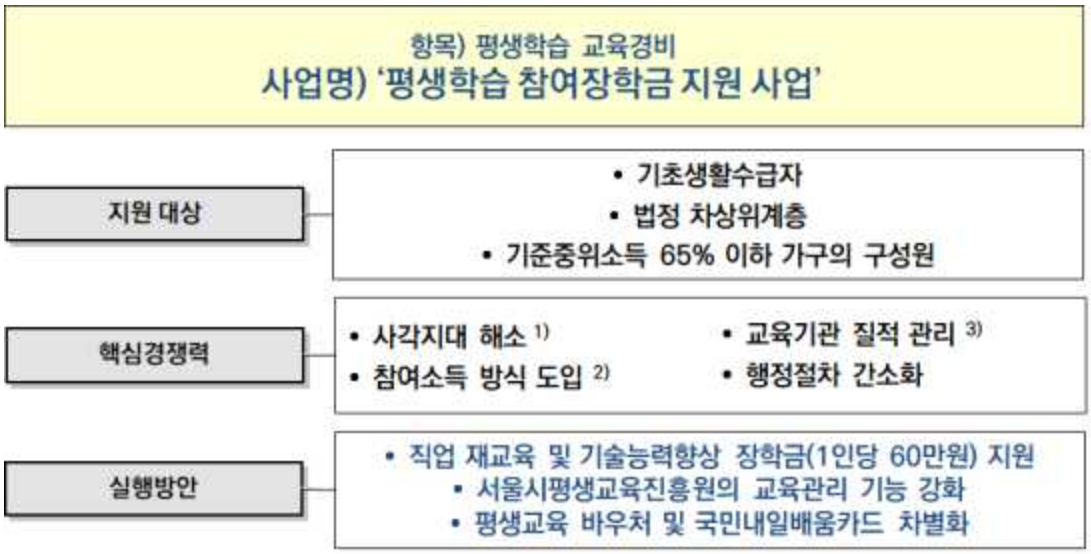
하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소득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제공하는 학습활동을 참여장학금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러한 참여장학금은 바우처 방식에서 필요로 하는 카드발급으로 인한 행정 불편을 감소시키는 한편 직업 재교육 및 기술교육의 용도 안에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교육 바우처의 한계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장점이 있음

□ 정책 추진전략

○ 사업 정의

- 본 사업은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의 선별지원으로 인해 학습비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교육 및 직업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제공, 직업전환 및 취창업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는 '평생학습 참여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1) 중앙정부의 교육급여(평생교육 바우처) 지급이 미치지 못하는 대상을 지원
2) 사업 목적에 따라 학습활동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
3) 교육기관 검증을 통한 질관리로 사업 효과성 증대

[그림 ○○] 서울시 참여장학금 사업 정의

- 평생학습 참여장학금은 평생교육 바우처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교육급여의 목적을 직업과 관련한 재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으로 제한하고, 지급 방식을 선지급이 아닌 참

여 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 정합성을 높인 것이 특징임

- 서울시 평생학습 교육경비로써 참여장학금은 사업 초기엔 충분한 예산과 교육공급기관 확보가 용이치 않은 만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통해 점차 수혜자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교육의 장학금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는 민선8기 서울시의 정책기간인 2026년 상반기까지를 1차적인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사업의 개념과 특성을 규정짓고자 함

○ 사업 특성과 실행 방안 개요

- 서울시 참여장학금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크게 4가지로, 첫째 사각지대 해소는 중앙정부의 교육급여,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이 미치지 못하는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참고로 평생교육 바우처는 예산지원의 한계, 무작위 추첨식 선별지원으로 인해 최근 2년 간(2021-2022) 서울시 신청자 1만 9,232명 가운데 56.6%인 1만 878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
- 둘째, 참여소득 방식 도입은 참여장학금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으로 수혜자에 대한 지급 조건으로 참여라는 조건을 부과, 직업훈련 및 교육 참여라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통해 노동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셋째, 교육기관 질적 관리는 교육 서비스의 공급 측면을 형성하는 교육기관들을 사업 목적에 맞게 준시장 형태로 구성하고, 서울시의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급자들의 교육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는 평생교육 바우처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사용자들이 카드 등록과 결제 등 바우처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기관의 교육 신청 및 이수만으로 급여 지급이 완료되는 시스템적 접근을 말함

○ 차별화 전략

- 약자와의 동행 : 취약계층의 재교육에 포커스
  - 서울시는 '약자동행 특별시'를 시정방향으로 제시,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불신을 종식하고 시민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바람에 충실한 시정을 이룰 것을

공표하였으며, 이를 실천할 교육시정은 차별 없는 교육환경으로 벌어진 교육 격차를 더욱 좁혀나가는 것이 핵심적 정책임

-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정책 방향에 따라 민선8기 서울시의 공약실천계획은 시민의 직업역량 강화 및 학점 취득 기회 확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대상인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사업은 공약명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평생학습 정학금을 통한 학비 보조 추진'이며, 그 목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창업 준비를 위한 전문교육 훈련 경비 지원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추진임
-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일자리 약자에 해당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다 높으 숙련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이자 평생교육의 사다리가 되어야 함

-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표 00> 교육경비 지원정책 비교

구분	서울시 참여장학금	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목적	일자리 약자의 사회참여 촉진 및 공정한 미래교육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실현	자기주도적 훈련선택 보장
대상	저소득 계층	저소득 계층	모든 국민
지원금액	연간 60 만원	연간 35 만원	5 년간 300 만원
제공형태	참여 후 인증교육기관을 통한 지급	전자식 바우처 선지급	전자식 바우처 선지급
지원절차	신청→ 대상자 확인→ 미래기초역량교육 (진흥원) → (가칭)서울 평생교육인증기관 교육 참여→ 기관 확인→ 장학금 지급	시스템 가입→ 지원 신청→ 교육계획입력 (선택) → 자격확인→ 교육기관 신청→ 바우처지급 → 교육이수 확인	시스템 또는 고용센터 카드 발급→ 발급심사→ 체크카드 발급→훈련과정 신청→본인부담금 결제
교육영역	직업 재교육·기술 미래교육	평생학습 전 영역	직업훈련 및 개발
지원내용	교육 제반비지원 , 무료 미래기초역량 교육	교육 제반비지원	교육비 부분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 첫째, 정책목적에서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인 일자리 약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공정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 내의 교육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 평생교육 바우처와 국민의 자기주도적 훈련선택 보장을 목적으로 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차이가 있음

-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투자만 있고, 소비적인 교육훈련이나 대안없는 일자리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생교육 바우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취미교양이나 학력보완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나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카드발급자 중 훈련실시자 비율이 45.9%에 머물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둘째, 공공서비스의 제공 형태에서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수급자들이 교육참여 후 인증교육기관을 통한 지급 방식을 취하는 반면 평생교육 바우처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전자식 바우처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취함
- 이러한 차이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 참여장학금이 자산조사와 카드발급 등에 따라 수급자들의 행정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른 행정비용의 절감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지원자 신청, 대상자 확인, 기초역량교육, 인증기관 교육 참여, 기관 확인, 장학금 지급 등의 절차를 따른다면 평생교육 바우처는 시스템 가입, 지원 신청, 교육계획 입력, 자격 확인, 교육기관 신청, 바우처 지급, 교육참여, 교육이수 확인 등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시스템 또는 고용센터 카드 발급, 발급 심사, 체크카드 발급, 훈련과정 신청, 본인부담금 결제, 교육참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참여장학금의 후지급 방식은 교육기관 인증을 통한 질 관리와 교육기관에 대한 적절한 유인 제공과 함께 기관의 부정사용 및 서비스 포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평생교육 바우처가 교육 공급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에 지급되는 카드비율이 각각 0.3%, 5.2% 수준으로 낮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법임
- 또한 지원 절차에서 기초역량교육과 같은 중간 과정을 넣은 것은 취약집단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며, 참여소득 방식의 교육급여 지급 방식으로 개인 참여 의지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함임
- 셋째, 교육영역에서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직업 재교육과 기술 미래교육으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반면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학습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즈는 직업훈련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 점에서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미래 평생교육정책 성공을 위해 저숙련 인구

의 참여를 확대할 것과 프로그램 참여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단순하게 설계할 것을 요구한 OECD의 권고에 충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5.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세부 추진방안

○ 지원 대상자 설정

-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해마다 실제 지원율이 하락하여 2019년 신청자 수 대비 지원자 비율이 78.7%에서 2020년 76.4%, 2021년 68.4%, 2022년 54.0% 등으로 감소하였음
  -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발급인원이 2019년 6,401명에서 2022년 3만 9,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실제 지원율은 반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교육급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수급 대상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냄
  - 이를 서울시에 적용하면,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는 2021년 5,726명에서 2022년 1만 3,507명으로 1년 만에 2.5배 증가하였지만 수급자는 2년 간 모두 합해 8,354명으로 전국 수급비율인 54.0%에도 못미치는 43.4%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인 1만 878명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됨
  -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취약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교육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저숙련자까지 수급 범위를 확대
  - 서울시 저숙련자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530만 명(취업자 510만 명과 실업자 20만 명) 가운데 임금 근로자 420만 명 중 저숙련의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17만 명, 자영업자 90만 명 중 고용원이 없는 무급 가족종사 자영업자 65만 명, 일자리에서 소외된 실업자 20만 명 등으 약 200만 명으로 산출해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가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등의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자가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원을 얻는다면 저숙련자는 상대적 소득 수준 등의 이유로 인해 교육급여 지원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며,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일자리 약자에게 일의 캐퍼빌리티를 높이는 평생교육의 사다리, 직업전환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스위치가 되어야 함
- 문제는 행정 차원의 저숙련자의 증빙인데 여러 가지 정부지원사업들을 확인한 결과, 저숙련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으로, 무급 가족종사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가족관계증명원 등으로, 장기실업자는 연소득증명,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 확인 등으로 증빙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
  - 서울시 참여장학금의 사업추진체계는 평생교육과의 행정지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운영, 서울시 소재 교육기관들의 교육공급 등 세가지 구성체계로 이루어지게 됨
  - 각각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생교육과는 사업계획 수립, 사회보장 신설 협의,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 사업 공고, 사업 신청 및 자격 심사. 수급자 선정, 참여장학금 지급 등에 있으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기관의 인증, 수급자 기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교육훈련 등록, 평가 및 이력관리 등을 수행함
- 사업준비단계의 추진 절차
  - 사업단계는 사업준비단계와 사업운영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단계에 따라 추진체계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사업준비단계는 서울시 참여장학금을 사업화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로 2023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실행한다고 할 때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의 약 1년 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과업으로 이루어짐
  - 사업준비단계의 첫 번째는 평생교육과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업보장 신설 협의 및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익년도에 실

행할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음

- 두 번째는 서울시 평생교육과가 서울시 참여장학금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제도로 신설하는 절차가 필요함
- 이 절차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013.1.27., 시행, 2012.1.26. 전부개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르며,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사회서비스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됨
- 2022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변경사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서울시는 늦어도 익년인 2022년 6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완료하여야 함
- 세 번째는 서울시 참여장학금을 합법화하고, 사업 운영의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으로, 이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함
- 사업준비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일은 참여장학금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교육기관을 인증하는 작업과 참여장학금 수급자들의 기초역량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로 배정할 수 있음

❍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 사유
- 첫째,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조문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진흥조례의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조례는 현재에도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항에서 경비 지원에 관한 조문을 명시하고 있는 바 평생학습 교육경비와 관련된 세부 문항 삽입으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서울시 참여장학금 사업을 시행시 사업운영기관이 되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명목 추가가 필요함

-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안) 내용

  - 첫째,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에 “시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함
  - 이는 평생교육법 제16조의 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조문을 활용한 것으로, 서울시 참여장학금이 수급자의 교육 이수 후 교육인증기관에게 비용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미 평생교육진흥조례의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는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시민들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문항만으로 충분히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제18조(사업)에 진흥원의 사업으로 “평생교육 경비 지원”이라는 조문을 신설함
  -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가운데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의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함임

□ 중장기 발전 방안

○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 공정한 교육의 미래, 위대한 리셋 서울

- 추진목표 : 시민의 숙련 향상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공정한 평생교육체제 구축

- 추진전략

  - 민선 8기 임기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론 교육취약계층의 재교육, 공정한 학습시스템 구축 등 평생학습 공종체제를 마련하는 데 집중적으로 추진함
  - 중장기적으론 모든 서울시민의 미래교육, 생애과정 역량 제고 등 시민중심의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데로 나아감

- 정책방향

-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참여동기, 참여소득, 참여사회 등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 첫째, 참여동기는 서울시민의 다양성에 기반한 시민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직업훈련 및 재교육의 다양한 요구 수렴과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의 숙련향상과 재교육을 위한 미래기초역량센터를 운영하고, 서울 평생직업교육인증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함
- 둘째, 참여소득은 시장에서 기업가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사회적 요구에 답하기 위해 잉태된 것으로 변화된 노동과정에 맞는 시민 재교육과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데 목표가 있음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참여장학금 실험교육을 통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참여장학금 교육사각지대 발굴 및 사업 확대를 실행함
- 셋째, 참여사회는 시민이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목표가 있음
- 이를 위해 서울시 참여장학금 플랫폼 개발 및 연계·운영과 참여장학금 이력관리 및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을 수행하도록 함

○ 세부사업별 추진내용

- 시민의 숙련향상과 재교육을 위한 미래기초역량 센터 운영
  - 서울시민대학의 미래기초역량교육 개발 및 운영
  - 참여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습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서울 평생직업교육인증기관 네트워크 구축
  - 서울참여장학금 연계기관 확보 및 인증사업 운영
  - 평생직업교육 질 관리를 통한 동기 부양 및 참여 촉진
- 참여장학금 실험교육 및 지속적인 사업 확대
  - 참여장학금 사업모델 개발 및 효과성 검증
  - 지속적인 컨텐츠 및 서비스 강화
- 서울시민 참여장학금 플랫폼 개발 및 연계·운영
  - 참여장학금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교육 프로그램 수급 정보 및 학습콘텐츠 포팅
  - 평생학습포털, 서울런, 학습지원 플랫폼 연계·운영

- 참여장학금 이력관리 및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
  - 참여장학금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기업연계 참여장학 사업 및 학습 후 취업체 지원
  - 참여장학금 연계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

목 차

Ⅰ. 연구의 개관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7

Ⅱ. 평생학습 교육경비 현황 분석

제1절. 평생학습 교육경비 유사 사업 현황 ····· 15
제2절. 서울시 평생교육 기관 현황 ····· 27
제3절. 해외 평생교육 장학금 운영 사례 ····· 36

Ⅲ. 평생학습 교육경비 요구 분석

제1절. 서울시 평생학습 참여 현황 ····· 49
제2절. 평생교육바우처 참여 현황 ····· 57
제3절. 평생교육바우처 전문가 FGI ····· 70

Ⅳ. 정책방향 및 전략

제1절. 평생학습 교육경비 정책방향 설정 ····· 77
제2절. 정책 추진전략 ····· 84

Ⅴ. 세부 추진계획

제1절. 사업 세부 추진방안 ····· 95
제2절. 중장기 발전방안 ····· 109

참고문헌 ····· 119

표 목 차

<표 Ⅱ-1>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법적 근거 ····· 16
<표 Ⅱ-2>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현황 ····· 18
<표 Ⅱ-3> 평생교육바우처 선정자 연령별 현황 ····· 19
<표 Ⅱ-4> 지역별 평생교육바우처 대상 및 지원 현황(2021년) ····· 20
<표 Ⅱ-5> 평생교육바우처 유사 사업 현황 특징 ····· 22
<표 Ⅱ-6> 평생교육바우처 유사 사업간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 ····· 25
<표 Ⅱ-7> 지자체 평생교육 장학금 사업 ····· 26
<표 Ⅱ-8> 서울시 직업능력향상 주요 교육기관 현황 ····· 27
<표 Ⅱ-9> 서울시 주요 직업능력향상 교육기관 지역별 현황 ····· 29
<표 Ⅱ-10> 서울시 유형별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 31
<표 Ⅱ-11> 서울시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2018년) ····· 32
<표 Ⅱ-12> 서울시 지역별 평생교육기관 현황(2018년) ····· 33
<표 Ⅱ-13> 서울시 지역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현황(2021년) ····· 35
<표 Ⅱ-14> 평생교육바우처 국외 유관 사례 ····· 37
<표 Ⅱ-15> SkiisFuture Moment 주요 사업 ····· 42
<표 Ⅱ-16> 기타 해외 사례 비교 ····· 47
<표 Ⅲ-1> 서울시 평생교육 참여율 ····· 50
<표 Ⅲ-2> 서울시 평생교육 참여 시간 ····· 51
<표 Ⅲ-3> 서울시 평생교육 자가부담 학습비 ····· 52
<표 Ⅲ-4> 서울시 평생교육 참여목적 ····· 54
<표 Ⅲ-5> 서울시 비형식교육 학습비 외부지원율 ····· 55
<표 Ⅲ-6> 서울시 평생교육 참여 성과(직업영역) ····· 56
<표 Ⅲ-7>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수강 강좌 수 ····· 57
<표 Ⅲ-8> 평생교육바우처 이용목적 현황 ····· 59
<표 Ⅲ-9> 평생교육바우처 수강 현황 ····· 60
<표 Ⅲ-10>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전 평생교육 강좌 미수강 이유 ····· 61
<표 Ⅲ-11> 평생교육바우처 수혜자와 바우처 미사용 이유 ····· 62
<표 Ⅲ-12>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만족도 연도별 현황 ····· 63
<표 Ⅲ-13>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제도 개선 요구 ····· 64

<표 Ⅲ-14> 선호 요구조사 ····· 64
<표 Ⅲ-15>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성과 ····· 66
<표 Ⅲ-16> 평생교육바우처의 인과적 효과(직업교육분야 강좌 수강 여부) ····· 67
<표 Ⅲ-17> 평생교육바우처의 인과적 효과(직업교육분야 수강 관련 월평균 지출액) ·· 67
<표 Ⅲ-18> FGI 분석 내용 ····· 70
<표 Ⅳ-1> 교육경비 지원정책 비교 ····· 89
<표 Ⅴ-1>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현황 ····· 96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서울시 인구통계 현황 ····· 4
[그림 Ⅰ-2] 연구의 3가지 관점 ····· 7
[그림 Ⅰ-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0
[그림 Ⅰ-4] 연구 방법 ····· 11
[그림 Ⅱ-1] 연령별 평생교육 바우처 선정 현황 ····· 19
[그림 Ⅱ-2] 지역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현황 ····· 20
[그림 Ⅱ-3] 서울시 주요 직업능력향상 교육기관 분포 현황 ····· 28
[그림 Ⅱ-4] 서울시 평생교육시설 현황(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 ····· 32
[그림 Ⅱ-5] 서울시 지역별 평생교육기관 분포 현황(2018년) ····· 33
[그림 Ⅱ-6] 지역별 바우처 사용기관 및 기관 비율 ····· 35
[그림 Ⅱ-7] SkillsFuture Credit 개요 ····· 38
[그림 Ⅱ-8] SkillsFuture Credit 지원 방식 ····· 39
[그림 Ⅱ-9] SDS 홈페이지 ····· 45
[그림 Ⅲ-1] 학습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율 ····· 49
[그림 Ⅲ-2]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집단별 참여율 현황 ····· 50
[그림 Ⅲ-3]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집단별 자기부담 학습비 현황 ····· 52
[그림 Ⅲ-4] 평생교육 참여 성과 ····· 56
[그림 Ⅲ-5] 집단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목적 ····· 59
[그림 Ⅲ-6] 평생교육 강좌 미수강 이유 ····· 61
[그림 Ⅲ-7] 연도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만족도 ····· 63
[그림 Ⅲ-8] FGI 조사 대상 및 내용 ····· 68
[그림 Ⅲ-9] FGI 조사 내용 ····· 69
[그림 Ⅳ-1] 서울시 인구변화와 연령통합사회의 형태 ····· 79
[그림 Ⅳ-2] 서울시 참여장학금 사업 정의 ····· 84
[그림 Ⅳ-3] 각 숙련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 87
[그림 Ⅳ-4] 각 숙련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 88
[그림 Ⅴ-1] 서울시 평생학습 참여율 현황 ····· 97
[그림 Ⅴ-2] 학력별-소득별 평생교육 참여성과 ····· 98
[그림 Ⅴ-3]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 비율 변화 ····· 99

[그림 Ⅴ-4] 중장기적 관점의 서울시 참여장학금 지원 대상 ····· 100
[그림 Ⅴ-5] 서울시 참여장학금 사업 추진체계 ····· 101
[그림 Ⅴ-6] 비전 및 추진전략 ····· 109
[그림 Ⅴ-7] 서울시 참여장학금 지원정책 방향 ····· 110
[그림 Ⅴ-8] 정책목표 제시 ····· 112
[그림 Ⅴ-9] 서울참여장학금 지원 사업 로드맵 ····· 115

I

연구의 개관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Ⅰ 연구의 개관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평생학습 유인정책의 필요성

□ 인구감소시대의 교육적 당면 과제

○ 서울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1,000만 명의 인구규모가 2021년 952만 명으로 5.3%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25세 이상 성인인구의 비율이 75.3%에서 79.5%로 증가하면서 전형적인 노령사회의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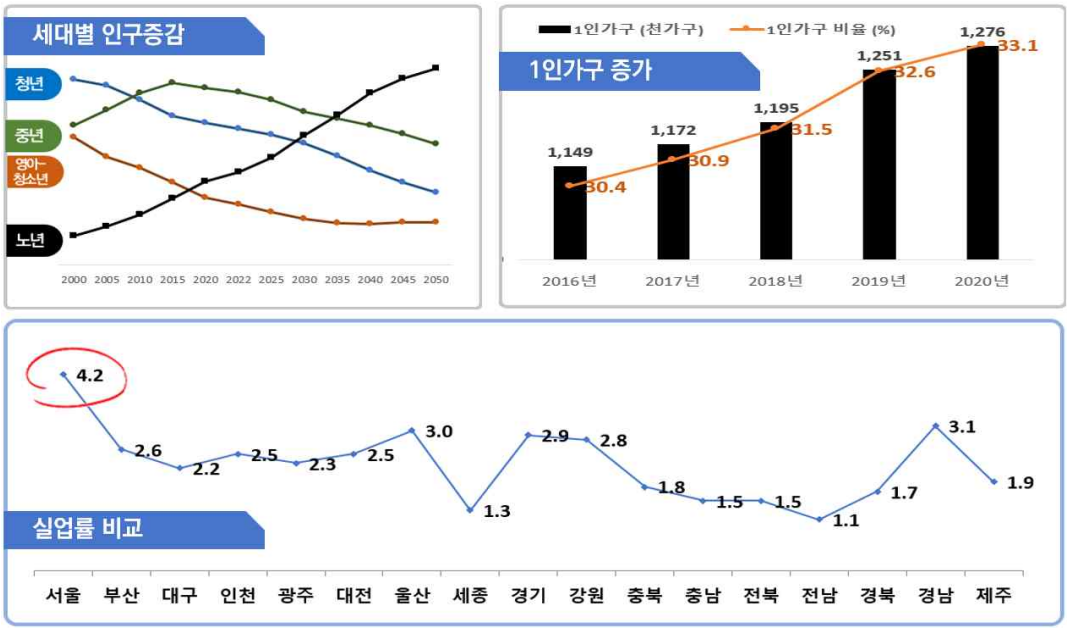
○ 1인 가구가 2016년 115만 가구에서 2020년 128만 가구로 5년 사이에 13만 가구가 증가하고,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33.1%를 차지하면서 서울시는 노령사회와 함께 축소사회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으로 서울시 고용률은 2020년 기준으로 59.3%를 나타내 전국 평균인 60.1%는 물론 같은 수도권의 경기도 61.3%, 인천시 60.3%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021년 기준 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점을 보여주고 있음

○ 이와 같이 서울시는 노령사회·축소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활력이 감퇴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유인마저 취약해지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 유인정책을 필요로 함

○ 이러한 정책 가운데 성인교육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정책은 사회 구성원인 개인

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이상준, 2021), 즉 생산인구 부족 등으로 일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민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임



자료 : 통계청(기준: 2021년 2/2분기)

[그림 Ⅰ-1] 서울시 인구통계 현황

□ 평생교육정책의 변화와 시대적 반영

○ 평생교육정책은 개인의 잠재력을 열어주고,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역량을 높이는 목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유네스코(2021)는 경력변화와 재교육을 위한 기회들이 제공되면서도 교육기회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참여와 포용을 우선시하는, 평생에 걸친 무형식 학습이 평생교육정책의 주안점임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관계부처 합동, 2021)는 국민의 80%가 25세 이상 성인인구로 이루어진 국가의 핵심 인적자원 정책으로 성인기 대상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평생교육 바우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전환하여 전 국민의 평생직업교육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국정목표를 세우고,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교육부는 정책실행의 일환으로 2023년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의 예산을 65억 원 증액하여 교육경비 지원 대상을 6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변화에 발맞춰 「서울미래교육비전 2030」에 서울시민 장학금을,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에 서울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을 명시한 바 있으며, 민선8기 서울시는 이를 공약사업으로 실현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평생학습 장학금을 통한 학비 보조'를 추진하게 되었음

○ 본 연구는 이상의 정책적 변화를 배경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교육경비(장학금)의 실체적 내용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음

나. 연구 목적

□ 평생학습 교육경비 요구 수렴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서울시가 평생학습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

○ 평생학습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취약계층이 갖는 학습의 어려운 점과 장학금 지원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지원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 평생학습 교육경비 정책 설계

○ 두 번째 목적은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평

생학습 명목 교육급여의 실체와 정의, 그 대상과 목적을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임

○ 이를 통해 시민의 교육급여로서 평생학습 장학금 지원 정책의 기획 방향과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 평생학습 교육경비 정책 실행 방안 마련

○ 세 번째 목적은 평생학습 교육경비의 자원 확보 및 관리, 장학금 지원 방식 등 실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이는 구체적으로 경비 사용처 및 학습 경로, 경비 지급 및 전달체계 등 공급망 구축 방안을 포함하게 될 것임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이론적 고찰

□ 노동경제학적 관점

○ 본 연구는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정책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3가지의 이론적 관점을 도입하고자 함

○ 그 첫 번째로 노동경제학적 관점은 지방정부로서 서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인적자본 투자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외부효과와 사회적 효용을 살펴보는 데 있음

노동경제학적 관점	평생교육학 관점	사회복지학적 관점
정부의 인적자본 투자에 따른 외부효과와 사회적 효용	보편적 학습기회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지향	현장중심 교육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 지원 체계
▪경제·노동 환경 변화(쌍둥이 전환) → 직무 및 숙련 변화 → 저소득자 숙련퇴화, 노동시장 차별 발생 ▪정부의 직업 교육·훈련 지원에 따른 소득 효과(자연실험 결과, 정부 차원의 투자 수익율은 10%) ▪공공복지의 급여 프로그램에 따른 근로 유인 효과 : 현금보조와 노동공급의 관계 분석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평생학습권 보장(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정부 및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참여 지원(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 ▪보편적 학습권 실현기제로서 평생교육 참여 비용 지원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개인훈련계좌 등 학습자 중심 교육 지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보장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급자 중심(위탁방식)과 수요자 중심(바우처 방식)의 차이 분석 ▪교육훈련 수요자 지원으로서의 조건부 현금급여(장학금) 특성과 장점 분석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효과성 검토

[그림 Ⅰ-2] 연구의 3가지 관점

○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의미하는 쌍둥이 전환은 경제 및 노동 환경의 변화와 양면을 이루고 있으며, 시민들의 직무 및 숙련 변화를 초래하여 환경 적응에 취약

한 시민들의 숙련 퇴화와 노동시장 내의 차별을 키우게 됨

○ 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지원이 시민들과 같은 개인의 소득 효과를 어느 정도 유발하는지를 측정하는 경제학적 실험 결과는 정부 차원의 투자 수익률이 1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음(Borjas, 2021)

○ 본 연구는 서울시의 평생학습 교육경비를 공공복지의 급여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근로 유인 효과 등 사회적 효용을 살펴보고자 함

□ 평생교육학적 관점

○ 두 번째 연구 관점은 평생교육학적 접근으로 시민들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정부의 정책 지향점을 살펴봄

○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평생교육법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음

○ 환경과 기술적인 도전이 교차하는 시기에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재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미래의 교육은 사회 전체의 참여와 공헌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

○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사람들은 지식공유제(knowledge commons)에 접근하고 기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세대를 거쳐 축적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류의 집단 지식 자원을 포함해야 함(UNESCO, 2021)

○ 특히, 서울시는 차별없는 교육환경으로 취약계층에게 교육 사다리를 복원시킨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기술 및 직업교육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시민의 발달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변화를 주도적 기회로 활용하고 시민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의 학습 참여 중요성을 증대(ILO, 2019)시키고, 생애과정 동안 숙련향상교육, 재교육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서울시의 평생학습 교육경비가 교육의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평생학습 시스템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 시민의 학습 선택과 책임감 강화, 학

습취약계층의 참여동기 부여, 교육시장의 선의의 경쟁을 촉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살펴보고자 함

□ 사회복지학적 관점

○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학적 관점은 사회서비스의 성격을 갖는 평생교육의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지원을 통해 복지 수혜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계점을 살펴보는 것임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급자 중심(위탁방식)과 수요자 중심(바우처 방식)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교육훈련 수요자 지원으로서의 조건부 현금급여(장학금) 특성과 장점을 고찰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복지 수혜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성을 겸비할 수 있는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을 정책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함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정책현황 조사

○ 첫째, 평생교육경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범위와 현황를 조사함

○ 둘째,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내용을 분석함

○ 셋째,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경비 지원 사례를 조사함

○ 넷째, 서울시에서 적용 가능한 평생교육경비 지원 범위 및 대상을 분석함

□ 요구 분석

○ 첫째,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 둘째, 서울시민의 평생교육경비에 대한 요구를 분석함

□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 정책 설계

○ 첫째, 평생학습 교육경비의 개념 정의 및 정책 규정을 시도함

○ 둘째, 서울시에 특화된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함

○ 셋째,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를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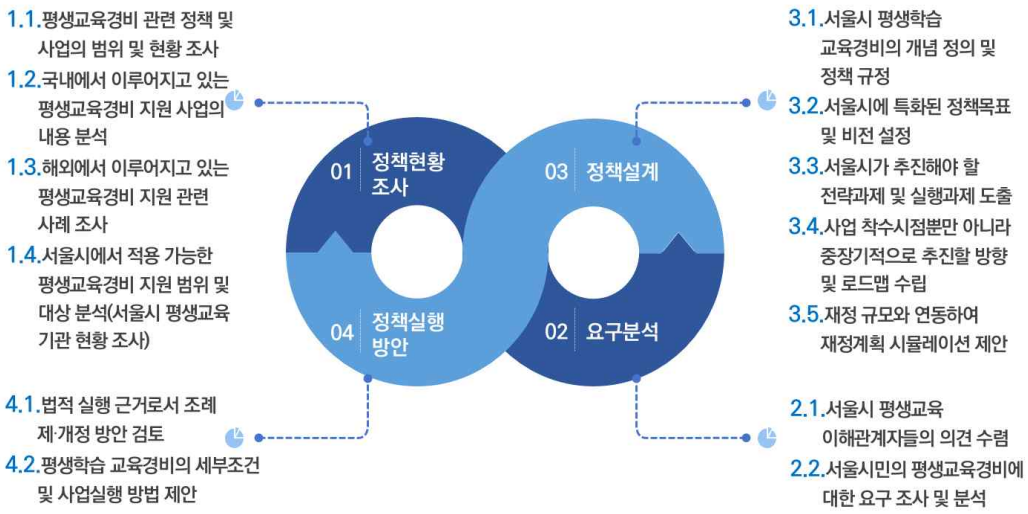
○ 넷째, 사업 착수시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향 및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다섯째, 사업의 재정 규모와 연동하여 재정계획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함

□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 정책 실행 방안

○ 첫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둘째, 평생학습 교육경비의 세부조건 및 사업실행 방법을 제안함



[그림 Ⅰ-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다.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평생교육 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평생교육경비 등 평생교육 분야의 선행연구를 고찰함

○ 문헌의 범위는 정책연구보고서, 논문, 보고서, 보도자료 등에 있음

[그림 Ⅰ-4] 연구 방법

□ 요구조사

○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교육경비에 대한 요구를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표적집단면접(FGI)를 통해 시민 및 관계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을 실시함

□ 사례연구

○ 우리나라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의 교육 바우처 사업, 경기도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급여지원 정책 등을 사례연구 방식으로 분석함

○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 등 평생학습 교육경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Ⅱ

평생학습 교육경비 현황 분석

제1절. 평생학습 교육경비 유사 사업 현황

제2절. 서울시 평생교육 기관 현황

제3절. 해외 평생교육 장학금 운영 사례

Ⅱ 평생학습 교육경비 현황 분석

제1절. 평생학습 교육경비 유사 사업 현황

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자 스스로 본인의 교육수준,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평생학습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금액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학습자가 스스로의 상황과 여건, 교육 수준 등에 따라 학습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평생학습을 생활의 일부로서 인식하여 계속 학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중심 학습'을 지원함. 저소득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자기계발과 삶의 질 개선 도모에 목적이 있음

○ 그동안 교육복지 지원이 초·중·고등교육 단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에서 성인교육 영역의 국가 책무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음. 교육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포용적 사회정책이자, 학습자 중심의 학습자 선택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음

○ 평생교육 정책은 참여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 '제공자'가 정부 재정 지원의 주 대상자였다면,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를 직접 지원 대상자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 '평생교육이용원의 제공 등'에 근거하고 있음.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위해 법적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항을 마련하여(2018년 2월)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과 이를 위한 자료 확인, 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바우처 지원기준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21.7~)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개념을 법제화하고 바우처 발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음

○ 평생교육 맞춤 지원을 위한 지자체 연계 지원체제 구축하여('21.7~). 발급 주체를 지차체까지 확대하였으며, 소득·재산 시스템 구축 및 지자체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후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1.12.9.)하고,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 기본계획 발표함(2021.12.)

<표 Ⅱ-1>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법적 근거(주요 개정 사항: 21. 12. 9. 시행)

구분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권 발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모든 국민'가지 확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권한 확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선정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마련 등
평생교육 시행령	평생교육이용권 우선적 발급 신청·요건 규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 및 역할
평생교육 시행규칙	이용권 신청절차 및 신청서 서식 신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자 조사 시 지참 서류의 기재사항 마련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 규정(고시)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발급배제 대상(국가장학금 수혜자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신청인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근거 신설 및 가구의 범위 명확화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근거 마련

*출처: 교육부(2021)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평생교육법, https://www.law.go.kr/법령/평생교육법시행령, 접속일자: 2022.5.26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현황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소외계층을 사업대상으로 2018년에 시작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개설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음. 이용권은 전자식 바우처 형태로 발급되며,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할 때 수강료 및 선택 강좌의 교재비와 재료비 사용이 가능함.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동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또는 법인과 단체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에서 사용가능하며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함

○ 교육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됨. 교육부에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국평원에서 이를 토대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이용자를 선정하며, 이후 이용자 관리, 사업 정산, 성과관리 등 사업 운영 전체를 관리하고 있음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예산 및 지원 인원 등의 이용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 사업예산 및 지원 규모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2021년으로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예산은 2018년에 총 2,391백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 사업예산은 총 14,07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0.6% 증가하였음. 실제 지원 인원은 2018년 4,496명 학습자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30,000명 지원을 목표로 산정하였음

○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는 총 72,216명이며 39,000명(54.0%) 발급하였음. 2019년부터 '중위 65% 미만' 대상이 포함되었으며, 2022년에 해당 대상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음

<표 Ⅱ-2>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현황

[기준: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청인원	5,857	8,127	13,575	28,541	72,216
지원인원	4,496	6,401	10,374	19,531	39,000
지원비율	76.8	78.8	76.4	68.4	54.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자료

○ 평생교육바우처 선정자의 연령대는 40대, 50대, 30대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Ⅱ-1] 연령별 평생교육 바우처 선정 현황

<표 Ⅱ-3> 평생교육바우처 선정자 연령별 현황

[기준: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2018년	8.6%	15.7%	36.3%	26.6%	12.8%	100.0%
2019년	13.5%	16.6%	34.9%	22.9%	12.1%	100.0%
2020년	12.0%	20.0%	34.4%	21.1%	12.4%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a)

○ 서울시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는 총 13,507명으로 전국대비 '18.7%' 비율임. 지역별로는 경기(22.2%)가 가장 높으며, 서울은 차순위로 높음

[그림 Ⅱ-2] 지역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현황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자는 최근 2년간 지원비율을 기준으로 경기 20.6%이었으며, 서울은 차순위로 20.4%이었음

<표 Ⅱ-4> 지역별 평생교육바우처 대상 및 지원 현황(2021년)

[단위: 명, %]

지역	바우처 지원 현황	대상자 비율	최근 2년간 지원비율
서울	416,729	17.1%	20.4%
부산	212,982	8.7%	8.2%
대구	145,028	5.9%	5.3%
인천	153,198	6.3%	6.5%
광주	89,516	3.7%	5.4%
대전	75,528	3.1%	3.3%
울산	39,253	1.6%	1.3%
세종	7,754	0.3%	0.8%
경기	439,621	18.0%	20.6%
강원	91,562	3.8%	2.5%
충북	77,818	3.2%	2.0%

[단위: 명, %]

지역	바우처 지원 현황	대상자 비율	최근 2년간 지원비율
충남	90,165	3.7%	2.4%
전북	135,379	5.6%	7.1%
전남	119,976	4.9%	3.0%
경북	150,377	6.2%	3.7%
경남	163,354	6.7%	6.3%
제주	32,305	1.3%	1.2%
계	2,440,545	100%	1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자료

나. 정부 부처 유사 사업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2008~2009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되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업임

○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없는 지원, 개인주도 훈련기회 확대, 경제활동 상태와 무관한 한 장의 카드, 자부담 통일로 형평성 제고, 양질의 훈련과정 제공과 기업 수요에 맞는 훈련 설계임(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2019)

○ 2022년 예산은 7만명, 총 1.3조원임.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일부 대상 제외), 1명당 300~500만원 지원하고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사업임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원유형은 Ⅰ유형과 Ⅱ유형의 2가지가 있음.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2년 예산은 60만명의 1.5조원,임. 지원대상은 15~69세 구직자이며, Ⅰ유형은 3백만원까지의 구직촉진수당을, Ⅱ유형은 최대 170만원까지의 취업지원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표 Ⅱ-5> 평생교육바우처 유사 사업 현황 특징

구분	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취업성공패키지)
부처	교육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목적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 자기계발 및 삶의 질 개선 지원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안정 및 취업지원서비스 종합적으로 제공
예산 규모	(21년) 74억원, 1만5천명 (22년) 141억원, 3만명	(21년) 1.4조원, 10만명 (22년) 1.3조원, 7만명	(21년) 1.2조원, 59만명 (22년) 1.5조원, 60만명
지원 대상	소외계층 성인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타 저소득층)	국민 누구나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역자(월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성,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자)	15~69세 구직자 *Ⅰ유형: 기준 중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 & 최근 2년간 취업경험 *Ⅱ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지원 금액	1명당 35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70만원)	1명당 300~500만원내 훈련비 45~85% 지원 (훈련장려금: 140시간 수강시 월 최대 116천원)	*Ⅰ유형: 1명당 3백만원 (50만원×6개월) *Ⅱ유형: 1명당 최대 170만원 (월 최대 284천원×6개월)
지원 교육	평생교육강좌 제반비용 (수강료, 교재비·재료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취업활동비용(Ⅱ유형)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진행 절차	사업신청·모집→선정→사용 및 모니터링→만족도 조사	사업공고→사업신청/적정성심사→훈련과정 인정→계좌발급 신청→훈련상담/카드발급→훈련실시→훈련비/훈련장려비 지급→평가	신청→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취업활동계획 수립→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해→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사후관리

구분	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취업성공패키지)
제공 형태	전자식 바우처 (카드사 연계)	전자식 바우처 (카드사 연계)	현금 지급 (계좌이체)
사용 기간	카드발급 당해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일)	5년간 사용	수당(6개월) *미취업자: 종료일 이후 3개월(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취업성공수당 지원
사용처 정보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직업훈련포털 (hrd.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출처: 각 홈페이지

□ 유사 사업 비교

○ 평생교육바우처와 주요 정부 부처의 유사 사업을 비교하면 개인주도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자 지원 정책이라는 유사점이 있음. 그리고 사업의 주된 지원 대상이 평생교육바우처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외계층 성인이라는 점에서, 제공형태가 평생교육바우처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전자식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이들 사업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업 목적에서 평생교육바우처는 넓은 의미에서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평생학습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에 목적을 하고 있음

○ 둘째, 지원 강좌에서 평생교육바우처는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취미/교양, 컴퓨터, 외국어, 자격증 등 다양한 평생교육분야 학습수강이 가능함. 그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중심의 사업이므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이나 취업지원서비스와 같이 실질적인 취업준비와 직업역량에 관련된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제한되지만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종류는 직업유형별로 다양한 특징이 있음

○ 셋째, 지원 내용에서 평생교육바우처는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등 교육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교육비 혹은 취업수당(구직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일자리 정보 탐색방법, 면접기법, 채용박람회, 일자리 소개, 동행면접 등) 등을 제공하는 차이가 있음

○ 넷째, 사용 기간에서 평생교육바우처는 사업 공지 해당년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사용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어 다음년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은 불가함. 그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표 Ⅱ-6> 평생교육바우처 유사 사업간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

구분		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사점	방식	수요자중심의 교육훈련 지원	수요자중심의 교육훈련 지원	수요자중심의 교육훈련 지원
	대상	소외계층 성인	모든 국민	소외계층 성인
	제공형태	전자식 바우처	전자식 바우처	현금
차이점	목적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	직업능력개발, 취업	직업능력개발, 취업
	강좌유형	평생학습 전 영역	직업훈련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지원교육	교육 제반비 지원	교육비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수당(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사용기간	사업 당해연도 (다음년도 이월 불가)	사업년도 제한없음 (선정이후, 5년간)	사업년도 제한없음 (선정이후, 최대 1년)
	신청시기	사업공지 기간 내 (인원미달시 추가 접수)	상시	상시

*출처: 각 홈페이지

다. 지자체 평생교육 장학금 지원제도

○ 그 외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에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제도를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Ⅱ-7> 지자체 평생교육 장학금 사업

구분	영등포구	논산시	화성시
사업명	평생교육바우처	시민기본평생학습장학금 (동고동락 평생학습이용권)	온국민평생장학금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영등포구민	만 19세 이상 시민 주민등록상 주소가 1년 이상 논산으로 등록된 자	화성시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만 30세 이상 만 35세 이하 화성시민
지원규모	2,500명 선발 연간 1인 20만원	10,000명 12만원(시비 10만원, 자부담 2만원)	1,650명 내외 1인당 30만원
선발방식	우선지원자(취약계층) 선정 대상자가 지원 규모 넘을 경우 온라인 추점	선착순	대상자가 지원 규모 넘을 경우 온라인 추점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수강료에 포함된 교재비, 재료비)	학습활동 수강료 (교재 및 재료비 포함)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지급방법	블록체인 기반 앱을 통한 카드 발급	농협 선불카드	선수강 후 사후 현금으로 학습비 정산 지급 향후 온국민평생장학금 앱(App)이용 QR코드 결제
사용기관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 평생직업기관)	논산시 관내 대학, 평생교육기관(학원, 문화체육시설 포함) 온라인 강좌	화성시 관내 대학, 평생교육기관 온라인 강좌

*출처: 각 홈페이지

제2절. 서울시 평생교육 기관 현황

가. 서울시 주요 직업능력향상 교육기관 현황

□ 직업능력향상 기관 현황 분석

○ 서울시에 직업능력향상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주요 교육기관으로 고용복지플러스 11개소, 기술교육원 3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가 있음

○ 각 교육원의 주요 대상층은 기술교육원은 청년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층이 주요 타겟임. 기관유형이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 상당수 치중되어 있으며, 남성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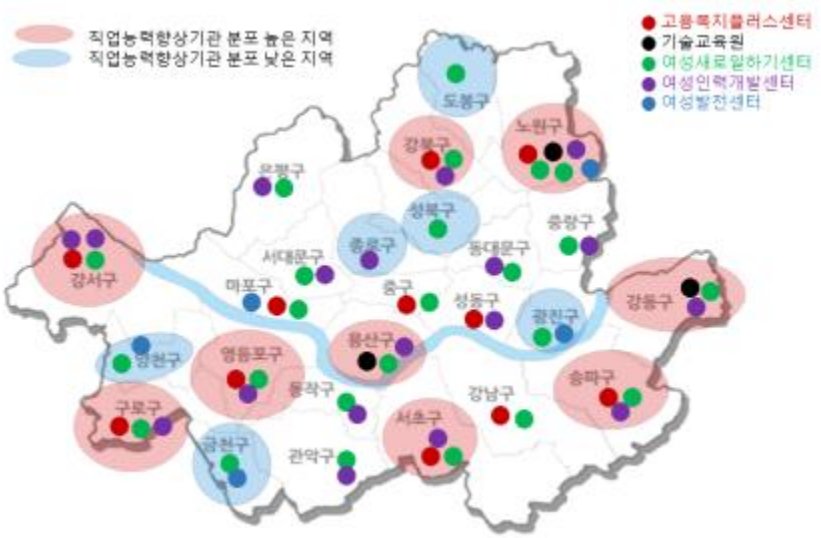
<표 Ⅱ-8> 서울시 직업능력향상 주요 교육기관 현황

[기준: 개]

구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술교육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주요 대상	중장년	청년	여성	여성	여성
기관 수	11	3	25	18	5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 직업능력향상기관의 분포 여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원구(6개소), 강서구(4개소)가 가장 많고,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각 3개소)가 분포가 많았고 도봉구, 성북구(각 1개소)는 분포가 적었음



[그림 Ⅱ-3] 서울시 주요 직업능력향상 교육기관 분포 현황

○ 지역별로 주요 직업능력향상 교육기관의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Ⅱ-9> 서울시 주요 직업능력향상 교육기관 지역별 현황

[기준: 개]

지역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기술 교육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총계
강남구	1		1			2
강동구		1	1	1		3
강북구	1		1	1		3
강서구	1		1	2		4
관악구			1	1		2
광진구			1		1	2
구로구	1		1	1		3
금천구			1		1	2
노원구	1	1	2	1	1	6
도봉구			1			1
동대문구			1	1		2
동작구			1	1		2
마포구	1		1		1	3
서대문구			1	1		2
서초구	1		1	1		3
성동구	1			1		2
성북구			1			1
송파구	1		1	1		3
양천구			1		1	2
영등포구	1		1	1		3
용산구		1	1	1		3
은평구			1	1		2
종로구			1	1		2
중구	1		1			2
중랑구			1	1		2
계	11	3	25	18	5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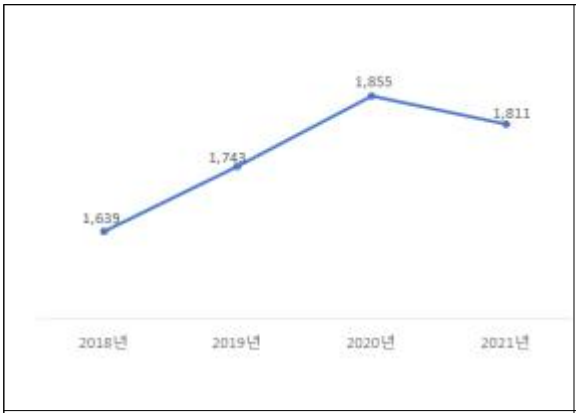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나.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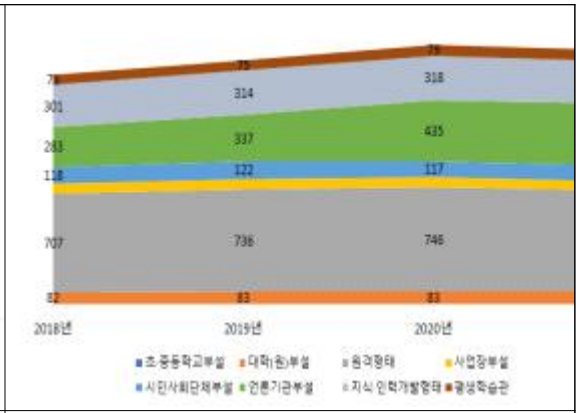
□ 평생교육기관 현황 분석

○ 2021년 서울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총 1,811개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21년도에 소폭 하락하였음

○ 기관 유형별로는 원격형태,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 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연도별 현황



기관 유형별 평생교육 기관 현황

○ 비형식 평생교육의 연도별로 기관 유형에 따른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Ⅱ-10> 서울시 유형별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단위: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초·중등학교부설	3	3	4	4	0.2%
대학(원)부설	82	83	83	83	4.6%
원격형태	707	736	746	722	39.9%
사업장부설	72	73	73	69	3.8%
시민사회단체부설	118	122	117	108	6.0%
언론기관부설	283	337	435	448	24.7%
지식·인력개발형태	301	314	318	298	16.5%
평생학습관	73	75	79	79	4.4%
계	1,639	1,743	1,855	1,811	

*출처: 통계청, **시·도평생교육진흥원(1개) 제외

○ 서울시의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관련 시설은 총 1,055개소임(2018년 기준). 기관 유형별로는 동 자치회관(37.2%)이 가장 많았으며, 복지관(15.2%), 도서관(11.9%), 문화예술체육시설(10.9%) 순으로 많았음. 이에 비해 가족관련시설(2.1%), 여성관련시설(2.8%), 직업훈련시설(4.7%)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그림 Ⅱ-4] 서울시 평생교육시설 현황(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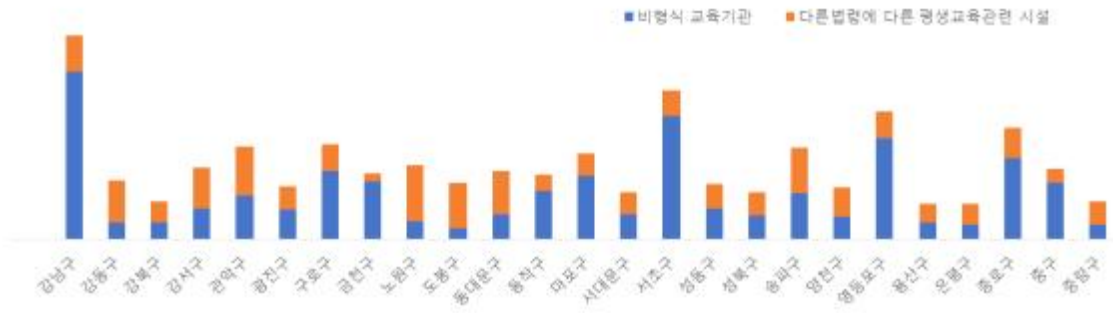
<표 Ⅱ-11> 서울시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관련 시설(2018년)

[단위: 개, %]

구분	기관 수	비율
도서관	126	11.9%
문화예술체육시설	115	10.9%
청소년시설	62	5.9%
여성관련시설	30	2.8%
복지관	160	15.2%
직업훈련시설	50	4.7%
가족관련시설	22	2.1%
동자치회관	392	37.2%
기타시설	98	9.3%
계	1,055	100.0%

*출처: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data.seoul.go.kr)

○ 서울시 지역별로 평생교육기관을 살펴보면, 강남구(10.8%), 서초구(7.9%), 영등포구(6.8%), 종로구(5.9%) 순으로 많은 기관이 소재하고 있었음



[그림 Ⅱ-5] 서울시 지역별 평생교육기관 분포 현황(2018년)

<표 Ⅱ-12> 서울시 지역별 평생교육기관 현황(2018년)

[단위: 개]

자치구	기관수		비형식 교육기관	다른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관련 시설	직업훈련시설
강남구	291	10.8%	240	51	-
강동구	84	3.1%	23	61	11
강북구	54	2.0%	24	30	-
강서구	102	3.8%	43	59	-
관악구	132	4.9%	62	70	14
광진구	76	2.8%	42	34	-
구로구	135	5.0%	98	37	-
금천구	94	3.5%	82	12	-
노원구	105	3.9%	26	79	1
도봉구	81	3.0%	15	66	2
동대문구	97	3.6%	35	62	21
동작구	92	3.4%	69	23	-
마포구	123	4.6%	90	33	-
서대문구	67	2.5%	36	31	-
서초구	213	7.9%	176	37	-
성동구	79	2.9%	43	36	-
성북구	68	2.5%	33	35	-

[단위: 개]

자치구	기관수		비형식 교육기관	다른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관련 시설	직업훈련시설
송파구	130	4.8%	66	64	-
양천구	74	2.7%	32	42	-
영등포구	182	6.8%	144	38	-
용산구	51	1.9%	23	28	-
은평구	50	1.9%	20	30	-
종로구	160	5.9%	115	45	1
중구	101	3.7%	81	20	-
중랑구	53	2.0%	21	32	-
계	2,694	100.0%	1,639	1,055	50

*출처: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data.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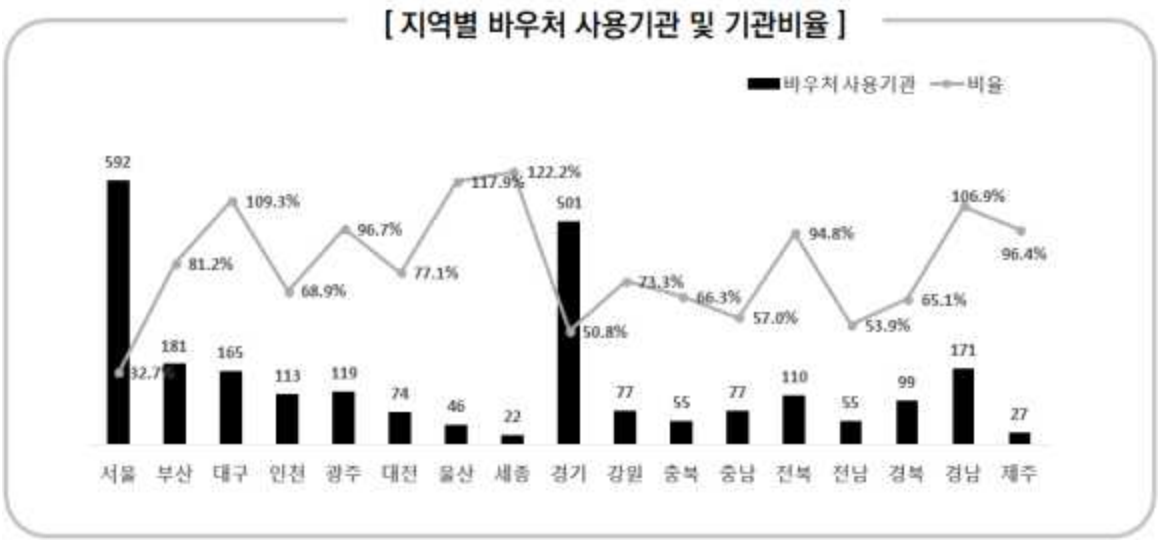
**시·도평생교육진흥원(1개) 제외

다. 서울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현황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현황 분석

○ 서울시의 바우처 사용기관은 총 592개소로(2021년 기준), 비형식 평생교육시설 수 대비하여 32.7% 비율임

○ 비형식교육시설 수 대비 바우처 사용기관 비율은 서울이 가장 낮았음. 세종(122.2%), 울산(117.9%), 인천(109.3%), 경남(106.9%)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32.7%), 경기(50.8%), 전남(53.9%), 충남(57.0%) 순으로 낮았음



[그림 Ⅱ-6] 지역별 바우처 사용기관 및 기관비율

<표 Ⅱ-13> 서울시 지역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현황(2021년)

[단위: 개, %]

지역	비형식 평생교육시설	바우처 사용기관	비율
서울	1,812	592	32.7%
부산	223	181	81.2%

[단위: 개, %]

지역	비형식 평생교육시설	바우처 사용기관	비율
대구	151	165	109.3%
인천	164	113	68.9%
광주	123	119	96.7%
대전	96	74	77.1%
울산	39	46	117.9%
세종	18	22	122.2%
경기	986	501	50.8%
강원	105	77	73.3%
충북	83	55	66.3%
충남	135	77	57.0%
전북	116	110	94.8%
전남	102	55	53.9%
경북	152	99	65.1%
경남	160	171	106.9%
제주	28	27	96.4%
계	4,493	2,484	55.3%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자료, 시·도평생교육진흥원(1개) 포함

제3절. 해외 평생교육 장학금 운영 사례

가. 해외 교육경비 지원 사례

○ 최근 전통적 근로계약에 의한 직접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비전형 근로자의 증가 등 불확실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직업과 고용상태 간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개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이 관심을 얻고 있음

○ 각 국가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개인학습계좌(Individual Learning Accounts),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s), 바우처(Vouchers) 방식이 널리 시행되고 있음. 바우처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으로 함(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 국내 평생교육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해외 대표 지역으로, 싱가포르 및 스코틀랜드의 교육경비 지원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표 Ⅱ-14> 평생교육바우처 국외 유관 사례

도시	시행년도	형태	지원대상	재정 출처	학습과정	참여인원
싱가포르	2006년	바우처	25세 이상 모든 국민	일반과세를 통한 자금 조달	SkillsFuture Singapore에서 승인 프로그램에 한함	146,000명 (노동가능인구의 4%) *18년 기준
스코틀랜드 (영국)	2004년	바우처	일정 소득 미만의 근로자	일반과세를 통한 자금 조달	자격증 혹은 인증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한함(승인된 13개 교육과정 영역 중 하나와 연계되어야 함)	20,222명 (노동가능인구의 0.8%) *18년 기준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b)

나. 싱가포르, SkillsFuture Credit(SFC)

□ 싱가포르 교육경비 지원 사례 분석

○ **(지원대상)** SFC는 만 25세 이상 싱가포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재정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핵심 인력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같음

○ **(지원금액)** SFC 금액은 1인당 S$500이며, 시민권을 유지하는 한 소멸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음.

○ **(추가재정)** 추가적으로 SkillsFuture Credit Top-up, Additional SkillsFuture Credit Mid-career를 제공하고 있음. SkillsFuture Credit Top-up은 기술 개발 및 평생학습에 대한 소유권을 시민 스스로 갖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5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국민에게 S$500 크레딧을 일회성으로 제공함. Additional SkillsFuture Credit Mid-career는 미래 경제에 필요한 기술 재교육과 기술 향상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5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시민에게 $500 크레딧을 일회성으로 제공함

○ **(사용처)** 싱가포르 정부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수강료 사용이 가능함. 바우처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기술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참여 가능 강좌는 SkillsFuture 홈페이지를 통하여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음. 강좌 유형은 SkillsFuture Singapore에 의하여 승인된 과정(온라인 과정 포함), 교육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의 일부 과정, 공공기관에 의하여 지원 받는 과정, People's Association에서 제공하고 있는 SkillsFuture@PA 과정,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의 참여로 개발된 과정, National Silver Academy가 운영하는 일부 과정, Udemy, Coursera 등 해외 MOOC 과정 등이 있음

○ **(신청방법)** SkillsFuture Credit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해야 함.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여 수강과정명, 수강료, 증빙서 탑재 등을 통해 수강정보를 입력한 뒤, 수강이력을 제출하면 학습비 지원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학습비 지원 여부를 통보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그림 Ⅱ-7] SkillsFuture Credit 개요

○ **(운영방법)** 2017년부터 개인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 직접 지원은 중단하고, 온라인 크레딧을 제공하여 가용 크레딧 범위 내에서 학습자가 수강한 강좌 수강료를 해당 강좌를 운영한 기관에 송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SkillsFuture Credit 지원 과정에 관한 일정한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승인 시 과정별 유효기간을 부여함. 강좌 등록은 교육기관의 직접 신청과 공공기관을 통한 신청이 있으며, 강좌 평가 및 승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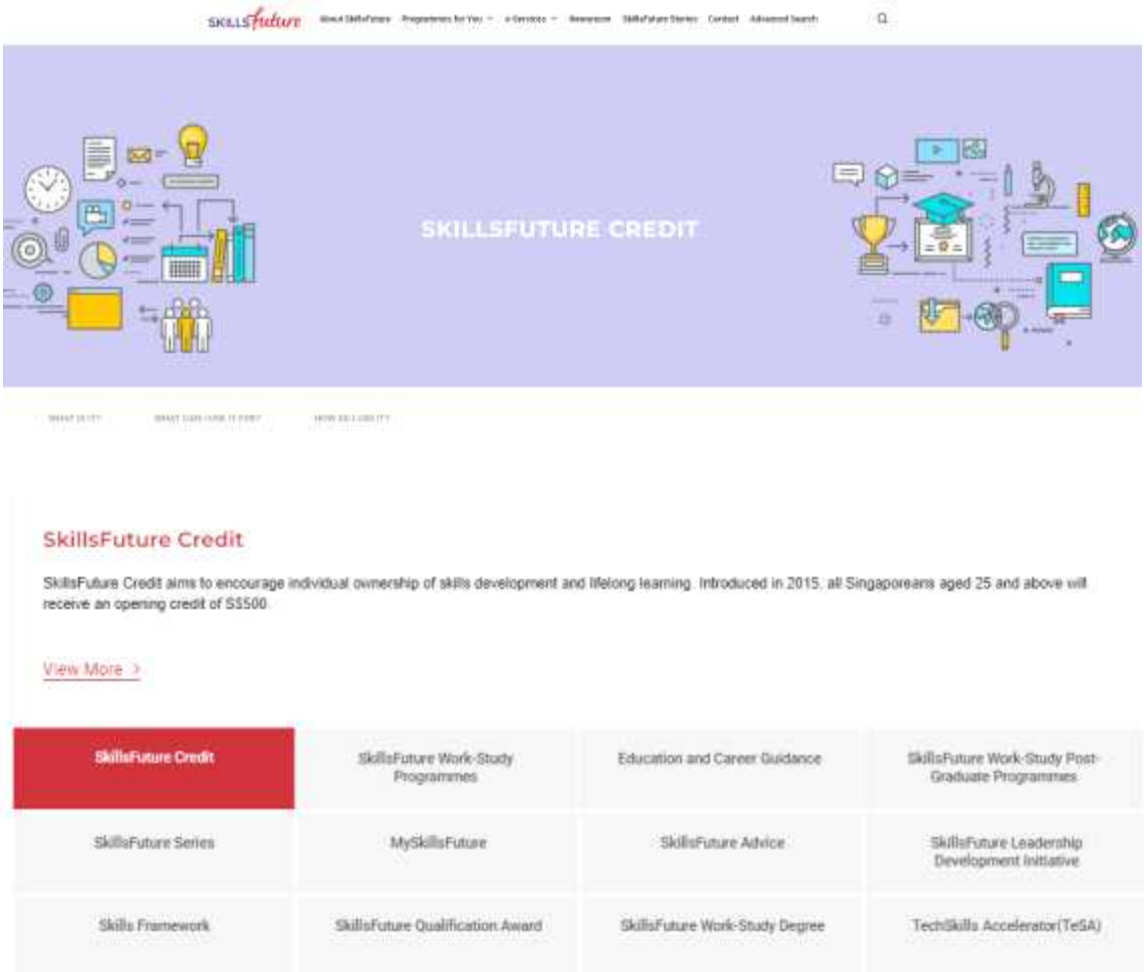
○ **(운영 관리)** 학습자 지원 서비스 측면에서 교육, 훈련, 노동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원스톱 방식의 온라인 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SkillsFutre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에서도 MySkillsFuture 온라인 포털을 통해 문자, 영상 등으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IT 시스템 활용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우편물 발송 등을 하고 있음

○ **(관리기구)** SkiisFuture Credit(SFC)를 포함한 계속교육훈련에 관한 정부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구는 SkiisFuture Singapore(SSG)임. SSG는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민간훈련기관 이외에도 기술교육원과 폴리텍, 자율형 대학교를 통해 숙련

[그림 Ⅱ-8] SkillsFuture Credit 지원 방식

기반 모듈식 과정을 관리함. 싱가포르 시민들이 학습을 평생에 걸친 여정으로 인식하고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지기 위해 2014년 10월에 평생학습협의회(Lifelong Learning Council)를 구성하였음. 평생학습협의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되며, SSG와 긴밀하게 협력함. SSG 협력사항으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채널을 통해 평생학습에 대한 협의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상담·지도, 권고안을 제공하고 지원함. 개인과 고용주에서 단체와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학습증진을 위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킹 기회를 촉진하고, 이니셔티브의 결과와 효과를 추적 및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강력한 평생학습 문화 구축을 위한 마케팅, 참여, 홍보 등을 제안하고 개발함(최영섭 외, 2017).

○ **(운영 결과)** SkillsFuture Credit는 2017년 기준으로 126,000명 이상이 사용했는데, 이는 S$37백만 규모의 정부 투자를 의미하며, 전체 노동가능인구(15-64세)의 7% 정도가 참여하였음. SFC를 한 번 이상 사용한 사람은 34%이고, 인당 사용금액은 거의 S$400임, 특히 25~29세 청년층이 S$500로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하였음. 사용은 전 연령대별로 양호한 사용분포를 보이며 60세 이상 고령층(23%)이 25~29세 청년층(16%)에 비해 더 높은 사용률을 보임. 가장 참여가 많은 교육훈련 분야는 정보통신기술로, 청년층은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관련 과정을, 노령층은 컴퓨터 기초 사용법 등 기본적인 IT강좌의 참여가 많음(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출처: https://www.skillsfuture.gov.sg/credit

○ SkillsFuture Credit(SFC)은 SkillsFuture Moment의 주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기술 개발 및 평생 학습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SkillsFuture는 지속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하나의 공동 정책 브랜드로서 모든 연령대 싱가포르 국민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촉진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2000년 이후 Lifelong for Life 취지에서 다양한 성인 계속교육훈련 정책들을 펼쳐 추진하다가 연장선에서 2016년에 SkiisFuture Credit를 포함한 SkiisFuture Movement를 시작하였음

○ SkiisFuture Movement는 '평생동안 사람들에게 투자한다는 새로운 단계에서의 투자'임. 이전의 교육정책과는 달리 SkiisFuture는 숙련개발과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적 정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철학적 요소를 더하였음. 즉, 학위증서(자격),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선호와 직업기술 습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고, 평생학습과 숙련숙달(skills mastery) 문화를 촉진해서 지식과 응용, 경험을 통해 보다 더 높은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있음

○ SkiisFuture Movement 사업의 핵심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과 훈련, 경력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둘째,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계 니즈에 대응하는 교육과 훈련을 위한 양질의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음. 셋째, 숙련과 숙달에 기반을 둔 경력개발과 고용주 인식 증진에 있음. 넷째,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축하는 문화를 확립하는 데 있음(최영섭 외, 2017)

<표 Ⅱ-15> SkiisFuture Moment 주요 사업

SkiisFuture 이니셔티브	수혜자	개요	운영 방법
SkiisFuture Credit	25세 이상 싱가포르 국민	훈련비용 보전, 숙련개발과 평생학습에의 개인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Credit 제공	훈련기관의 자체 과정에 등록 (승인 또는 지원을 받는 강좌이어야 함)
SkillsFuture Mid-Carrer	40세 이상 싱가포르 국민	SSG 및 교육부 직원 강좌 수강료의	개인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본 지원금의 수

SkiisFuture 이니셔티브	수혜자	개요	운영 방법
Enhanced Subsidy		최고 90%까지 지원	급자격이 있을 경우 보조금을 청구함
SkillsFuture Qualification Award	싱가포르 근로자	WSQ 자격(S$200) WSQ 학위(S$1,000)	근로자가 신청(SkillsConnect 홈페이지)
SkillsFuture Study Award	핵심부분의 초기, 중간경력을 가진 싱가포르 근로자	핵심부문의 전문 숙련기술 개발과 심화 훈련과정(S$5,000)	개인이 개별 당국/기관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신청(SSG 포털)
Skiis Framework	개인, 사용자, 훈련기관	취업, 진로, 직업, 직무, 기존 또는 신규 숙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최신 정보	싱가포르 숙련체계 개발과 이행을 위한 정부부처, 기관, 산업, 노조와 사용자, 상공회의소와 훈련기관들 간의 파트너십 및 협력의 구축/관리 싱가포르 숙련 체계의 설계, 개발, 시행, 검토 주관 싱가포르 숙련 체계의 이해와 수용, 도입의 증진을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접촉
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싱가포르 국민	개인들이 정보에 입각한 학습, 직업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숙련, 가치 제공	학교 교육 및 진로지도에서 전체 커리큘럼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교육 및 지도함
SkillsFuture Fellowship	동일산업/직업에 오랜 업무 경험을 쌓은 중간 경력의 싱가포르 국민	숙련,숙달의 계속 훈련과정(S$10,000)	해당 기관(싱가포르 경청)에 신청서 접수
Enhanced Internships	폴리텍, 기술교육원 재학생	숙련의 심화, 응용을 위한 업무 배정 및 업계 경험	강좌내용이 산업 니즈에 맞게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술자문협의회 지도하에 정규 강좌와 교육과정 검토
Young Talent programme	대학교, 폴리텍, 기술교육원 재학생	국제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해외 인턴십	학생들은 현재 재학중인 폴리텍을 통해 지원 가능하고, 기업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의 파트너 기관을 통해 해외 인턴십의 개발, 제공 정보를 얻음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다. 스코틀랜드, Induvidual Learning Accounts(ILA)

□ 스코틀랜드 교육경비 지원 사례 분석

○ 스코틀랜드의 개인훈련계좌(Individual Training Account)는 개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업자,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임

○ 스코틀랜드 개인훈련계좌는 2004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현재 2023년 3월까지 총 2만8천명 규모로 신청을 받고 있음(The Skills Development Scotland, 2022)

[그림 Ⅱ-9] SDS 홈페이지
출처: https://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6세 이상의 영국 시민권자이자 스코틀랜드 거주자 중 연간 소득 22,000파운드(약 3,520만원) 이하, 대학 졸업 미만의 학위 소자지이면서 현재 중등 및 고등교육을 받지 않으며, 구직 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않는 국민이 대상임. 2017년부터 새롭게 개편하여 지원대상을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 (지원금액) 공적자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16세 이상 저소득층 계층에게 연간 200 파운드(약 29만원) 수강료를 지원함(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 (신청방법) 개인훈련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자신의 소득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용처) 교육 참여자는 직업센터 혹은 기술개발 전문가 등의 학습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웹사이트(My World of Work)를 통해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운영관리) 개인훈련계좌를 통해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은 훈련의 질과 성과를 뚜렷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함. 훈련제공기관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제시한 영역에 한정해서 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영역은 ①농업, ②상업, ③건설, ④보육 및 양육, ⑤보건과 안전, ⑥과학·기술· 공학, ⑦수학, ⑧돌봄 및 교통 분야임

○ (전달체계) 스코틀랜드의 개인훈련계좌 제도의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직업능력원(Skills Development Scotland1: SDS)임. SDS는 스코틀랜드의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정부의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전달체계 역할을 맡고 있음. SDS 업무 영역은 크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교육, 도제 지원, 고용훈련, 사용자 지원 등이 있음. 이 중 개인훈련계좌 사업은 고용훈련 영역 가운데 가장 주요한 사업임

○ (운영 결과) 2018년 기준 20,222명이 참여하였는데, 스코틀랜드 노동가능 인구의 1% 미만 수준임. 참여교육과정은 2018년 스코틀랜드 Individual Training Accounts를 통해 수행된 과정 중 IT관련 강좌 참여가 높았으며, 공식 학위 또는 자격증 관련 과정은 5% 미만으로 낮았음

라. 기타 해외 사례

○ 서울시 평생교육바우처와 같이 평생교육의 교육경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적금 이자, 평생교육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지원하는 사례도 특징적임

<표 Ⅱ-16> 기타 해외 사례 비교

지역	명칭	주요 내용	형태
라인란트팔츠 주 (독일)	Quali-상품권	평생교육 참여를 통한 직업역량 개발을 위한 바우처 제공 2014~2020년 간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바우처 제공 개인의 수입에 따른 평생교육참여 예산 지원의 제한으로 인한 참여 저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바우처
브란덴부르그 주 (독일)	교육상품권 브란덴부르그, Bildungsscheck Brandenburg)	공공부분에 종사하거나, 직업교육양성과정에 다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성인의 성인평생교육 참여 지원 개인이 참여하는 교육비용의 최고 70%를 지원 참여 비용은 최소한 1,000 유로 이상이어야 지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함부르그 주 (독일)	계속교육보너스 함부르그	1주일에 15시간 이상 노동, 월간 최소 450 유로 이상 수입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비용 지원 저역량자, 외국계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부모 가정 해당자에 대한 우선 지원 평생교육 참여 비용의 50~70%를 최대 1,125유로까지 지원(재직 기관이 참여 비용에서 250 유로 부담)	
독일	평생교육 적금제도 (Weiterbildungssparen)	적금 해약 없이 적립금을 평생교육 비용으로 사용 만기이자 보너스를 그대로 받으면서 기존 적립액을 계속 교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줌	적금이자 보조금
독일	평생교육대출제도 (Weiterbildungsdarlehen)	평생교육비용을 낮은 금리로 대출 대출금으로 교육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수업에 관련된 부대비용까지 충당 가능 지정된 상담소에 가서 본인의 학습계획에 대해 상담을 받은 이후, 대출금 형태로 발급	교육비 대출

*출처: Latteke(20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21). 수원시평생학습학습관(2012).

Ⅲ

평생학습 교육경비 요구 분석

제1절. 서울시 평생학습 참여 현황

제2절. 평생교육바우처 참여 현황

제3절. 평생교육바우처 전문가 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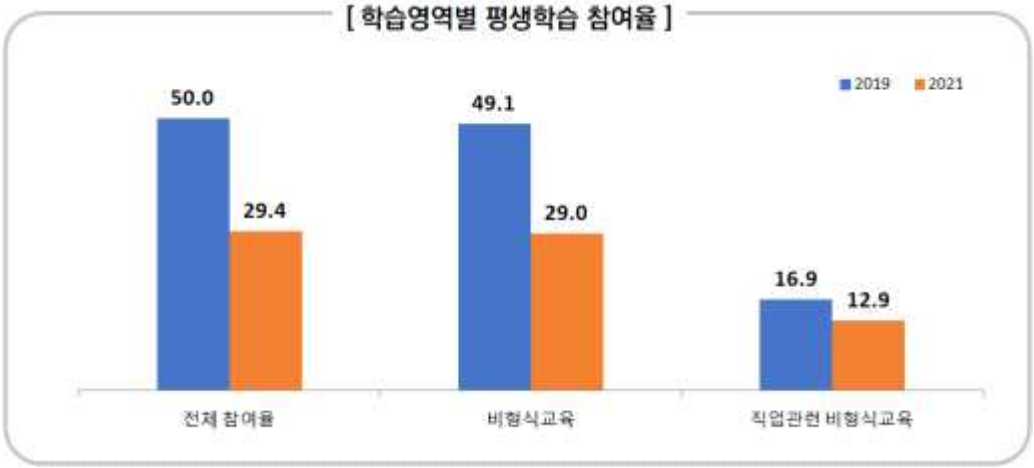
Ⅲ 평생학습 교육경비 요구 분석

제1절. 서울시 평생학습 참여 현황

가. 서울시 평생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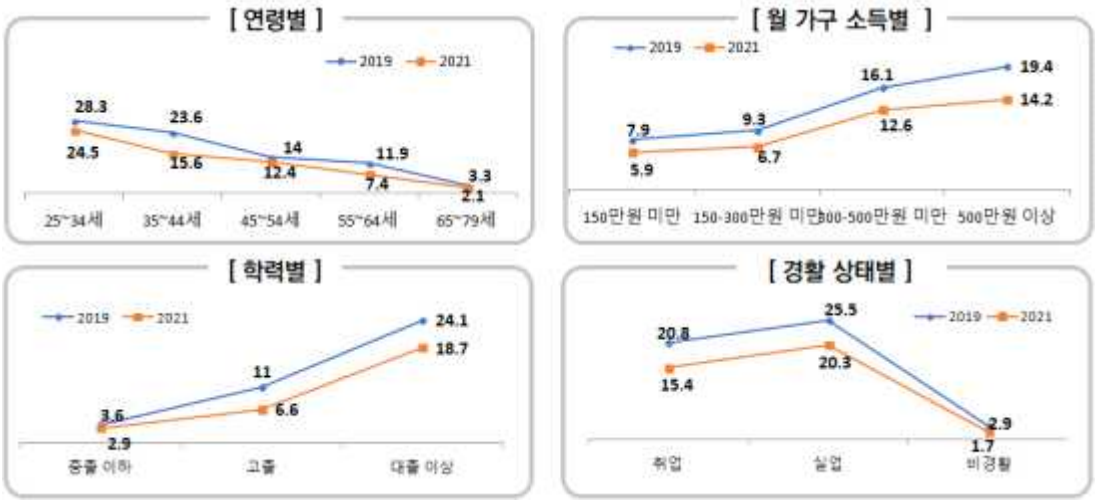
□ 서울시 평생교육 참여 현황 분석

○ 서울시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21년 29.4%로, 2019년 50.0%보다 낮았음.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021년 29.0%, 2019년 49.1%이었으며,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021년 12.9%, 2019년 16.9%이었음. 학습영역별로 전체적으로 2019년 대비 2021년의 참여율이 낮았으며, 참여율 차이(GAP)는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이 가장 적은 비율이었음



[그림 Ⅲ-1] 학습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율

○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집단별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가구 소득이 클수록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그림 Ⅲ-2]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집단별 참여율 현황

<표 Ⅲ-1> 서울시 평생교육 참여율

[단위: %]

구분		비형식교육		직업관련교육	
		2019년	2021년	2019년	2021년
전체		49.1	29.0	16.9	12.9
연령별	25~34세	55.6	40.6	28.3	24.5
	35~44세	52.1	31.7	23.6	15.6
	45~54세	47.4	28.1	14	12.4
	55~64세	46.9	23.3	11.9	7.4
	65~79세	41.4	18.5	3.3	2.1
학력별	중졸 이하	37.8	18.7	3.6	2.9
	고졸	42.2	20.7	11	6.6
	대졸 이상	56.5	36.1	24.1	18.7
경활 상태별	취업	48.8	30.5	20.8	15.4
	실업	57.1	35.3	25.5	20.3
	비경활	48.3	21.7	2.9	1.7
월가구	150만원 미만	37.6	24.8	7.9	5.9

[단위: %]

구분		비형식교육		직업관련교육	
		2019년	2021년	2019년	2021년
소득별	150-300만원 미만	39.1	23.7	9.3	6.7
	300-500만원 미만	45.2	27.4	16.1	12.6
	500만원 이상	54.3	30.6	19.4	14.2

*출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2019; 2021). 서울시민 평생학습 실태

○ 서울시 평생교육 참여시간은 비형식교육은 2021년(2020년 1월~12월), 2019년(2018년 1월~12월) 모두 88시간이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관련 교육은 2021년 95시간, 2019년 55시간보다 증가하였음. 연령이 낮을수록, 고졸, 비경활 상태에서의 참여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Ⅲ-2> 서울시 평생교육 참여 시간

[단위: 시간]

구분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2019년	2021년	2019년	2021년
전체		88	88	55	95
연령별	25~34세	98	117	90	125
	35~44세	73	73	43	65
	45~54세	90	98	39	98
	55~64세	89	66	24	63
	65~79세	95	55	23	29
학력별	중졸 이하	95	45	28	38
	고졸	88	81	40	105
	대졸 이상	88	95	61	94
경활 상태별	취업	95	45	38	64
	실업	88	81	219	299
	비경활	88	95	138	362
월가구 소득별	150만원 미만	96	72	176	90
	150-300만원 미만	83	93	77	90
	300-500만원 미만	90	89	49	104
	500만원 이상	88	95	54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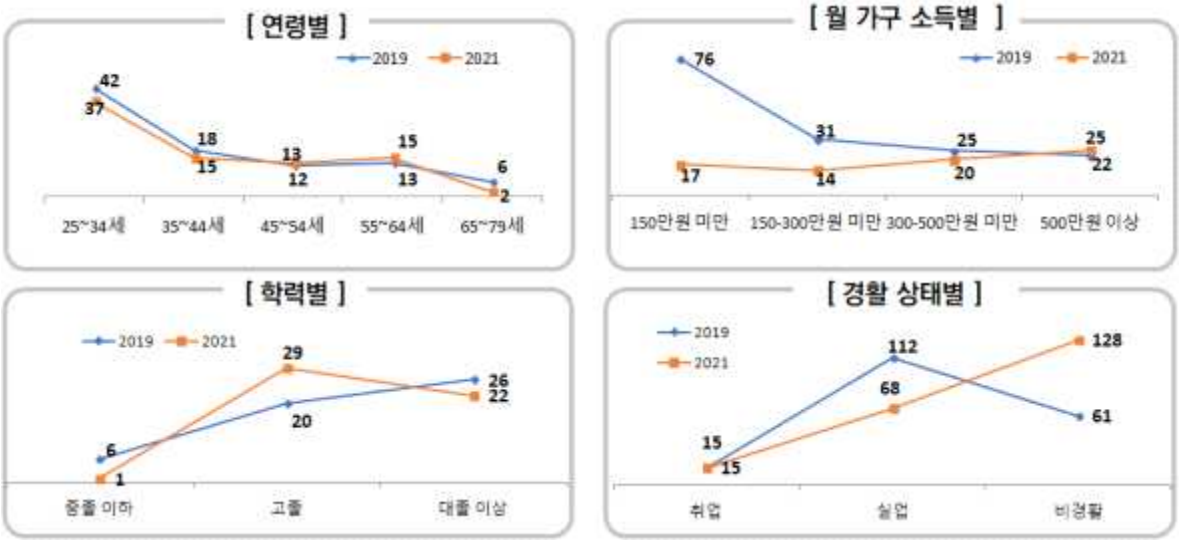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2019; 2021)

나. 서울시 평생교육 자기부담 학습비

□ 서울시 평생교육 학습비 분석

○ 서울시 평생교육 자기부담 학습비는 2021년(2020년 1월~12월) 31만원, 2019년(2018년 1월~12월) 41만원이었음.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기부담 학습비가 많았음

○ 서울시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자기부담 학습비는 2021년(2020년 1월~12월) 23만원, 2019년(2018년 1월~12월) 24만원이었음.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부담 학습비가 많았음



[그림 Ⅲ-3]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집단별 자기부담 학습비 현황

<표 Ⅲ-3> 서울시 평생교육 자기부담 학습비

[단위: 만원]

구분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2019년	2021년	2019년	2021년
전체		41	31	24	23
연령별	25~34세	55	43	42	37
	35~44세	36	35	18	15

[단위: 만원]

구분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2019년	2021년	2019년	2021년
	45~54세	37	27	12	13
	55~64세	37	22	13	15
	65~79세	33	14	6	2
학력별	중졸 이하	31	8	6	1
	고졸	36	25	20	29
	대졸 이상	44	36	26	22
경활 상태별	취업	37	29	15	15
	실업	76	53	112	68
	비경활	42	30	61	128
월 가구 소득별	150만원 미만	39	16	76	17
	150-300만원 미만	38	24	31	14
	300-500만원 미만	42	37	25	20
	500만원 이상	42	30	22	25

*출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2019; 2021)

○ 비형식교육 참여자 중 외부로부터 학습비를 지원받은 비율은 2021년 32.4%, 2019년 20.9% 대비 증가하였음

○ 2021년을 기준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월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외부지원 비율이 높았으며, 2019년 대비한 외부지원율 변화 비율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월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증가율이 높았음

<표 Ⅲ-4> 서울시 평생교육 참여목적

[단위: %,]

구분		직업 관련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에 필요 기능습득	성과급, 연봉 등 소득증대	고용안정 (일자리 유지)	직업 무관
전체		44.3	10.0	22.4	0.9	11.0	55.7
연령별	25~34세	58.4	16.4	27.7	0.5	13.8	41.6
	35~44세	50.3	8.8	27.0	1.6	12.9	49.7
	45~54세	43.0	8.7	23.4	1.3	9.7	57.0
	55~64세	30.7	6.8	15.1	0.5	8.4	69.3
	65~79세	10.8	0.8	5.3	0.4	4.3	89.2
학력별	중졸 이하	15.9	2.3	3.1		10.4	84.1
	고졸	30.8	9.1	15.9	0.2	5.7	69.2
	대졸 이상	51.2	11.0	26.3	1.2	12.7	48.8
경활상태별	취업	50.4	7.6	28.1	1.1	13.6	49.6
	실업	53.9	44.1	5.6		4.3	46.1
	비경활	6.9	6.4	0.4			93.1
월가구소득별	150만원 미만	22.0	11.4	10.6			78.0
	150-300만원 미만	28.8	5.1	15.0		8.7	71.2
	300-500만원 미만	45.2	10.2	22.0	1.5	11.4	54.8
	500만원 이상	46.1	10.5	23.7	0.7	11.3	53.9

*출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2021)

다. 서울시 평생교육 참여목적 및 성과

○ 서울시 비형식 평생교육에 참여한 목적은 '직업과 관련된 목적' 이 44.3%이었으며, 직업과 관련된 목적 중,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22.4%)'이 가장 높았음.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가구소득이 클수록 직업과 관련한 목적으로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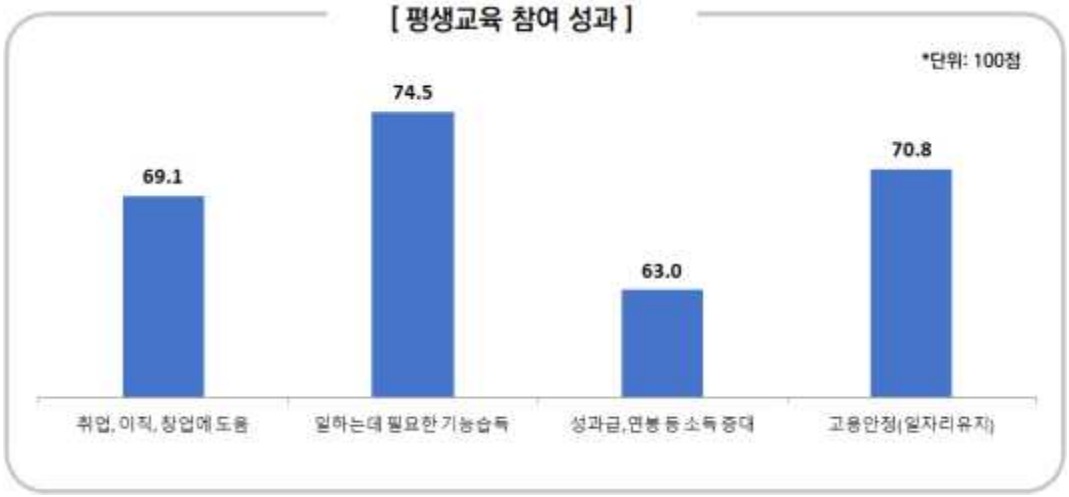
<표 Ⅲ-5> 서울시 비형식교육 학습비 외부지원율

[단위: %]

구분		외부지원 비율			국기기관 및 지자체 등		
		2019년	2021년	증감	2019년	2021년	증감
전체		20.9	32.4	11.5	3.5	8.7	5.2
연령별	25~34세	28	37.7	9.7	1.9	7.9	6
	35~44세	29.6	41.4	11.8	3.2	5.2	2
	45~54세	17.2	29	11.8	2.5	7.4	4.9
	55~64세	13.4	21.9	8.5	4.3	12	7.7
	65~79세	10.4	19.1	8.7	7.8	16.2	8.4
학력별	중졸 이하	8.9	31.3	22.4	5.2	26.3	21.1
	고졸	10.8	16.2	5.4	4.6	7.8	3.2
	대졸 이상	27.8	37.8	10	2.8	7.4	4.6
경활 상태별	취업	26.2	37.7	11.5	2.6	7.7	5.1
	실업	8.7	20.5	11.8	7.6	17.6	10
	비경활	7.9	9.7	1.8	5.4	9.7	4.3
월 가구 소득별	150만원 미만	8.2	33.4	25.2	6.7	26.8	20.1
	150-300만원 미만	15.8	31.8	16	8.9	16.6	7.7
	300-500만원 미만	18.6	34.5	15.9	4.1	9.9	5.8
	500만원 이상	23.5	31.4	7.9	2.3	6.8	4.5

*출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2019; 2021)

○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직업영역' 성과를 살펴보면,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74.5점)', '고용안전(70.8점)'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영역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Ⅲ-4] 평생교육 참여 성과

<표 Ⅲ-6> 서울시 평생교육 참여 성과(직업영역)

[단위: 점/100점]

구분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일자리유지)
전체		69.1	74.5	63.0	70.8
연령별	25~34세	75.3	78.2	66.9	74.7
	35~44세	69.1	75.9	63.8	74.1
	45~54세	67.2	74.3	63.1	70.5
	55~64세	66.4	71.8	60.4	66.4
	65~79세	51.5	57.9	48.5	52.8
학력별	중졸 이하	54.1	58.0	50.4	54.3
	고졸	66.9	72.5	61.7	67.1
	대졸 이상	70.6	75.9	64.1	72.8
경활 상태별	취업	69.8	76.2	64.7	72.9
	실업	78.9	79.1	64.1	73.7
	비경활	55.3	54.9	47.2	48.3
월 가구 소득별	150만원 미만	57.6	68.1	49.6	57.9
	150-300만원 미만	61.1	63.3	54.8	60.2
	300-500만원 미만	72.0	78.0	67.1	74.6
	500만원 이상	68.7	74.0	62.2	70.2

*출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2021)

제2절. 평생교육바우처 참여 현황

가.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 현황

□ 평생교육 바우처 참여 현황 분석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강좌 수는 평균 2.24개로, 1개 강좌를 듣는다는 응답 비율은 60.2%로 2개(17.0%), 3~4개(10.8%), 7개 이상(6.4%), 5~6개(5.6%) 순이었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이 평균 2.45개로 여성(2.17개) 대비 많은 강좌를 들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강좌를 들었음. 자격유형별로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7>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수강 강좌 수

[기준: %, 개]

구분		1개	2개	3~4개	5~6개	7개 이상	평균(개)
전체		60.2	17.0	10.8	5.6	6.4	2.24
성별	남성	55.8	17.6	11.2	6.6	8.8	2.45
	여성	61.8	16.8	10.6	5.3	5.5	2.17
연령별	만19-39세	57.8	13.9	11.5	7.8	9.0	2.49
	만40-49세	57.5	18.9	11.9	3.9	7.8	2.36
	만50세 이상	65.5	18.1	8.8	5.4	2.2	1.86
자격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610	17.1	11	4.5	6.5	2.18
	법정차상위계층	61.0	17.9	9.9	5.6	5.6	2.31
	기준중위소득 65%이하	55.7	15.1	11.5	10.4	7.3	2.36
학력별	중졸 이하	61.1	27.8	5.8	2.1	3.1	1.76
	고졸	64.4	14.3	9.5	6.3	5.4	2.12
	대졸 이상	56.9	15.7	13.2	6.2	8.0	2.47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b)

○ 평생교육바우처 수강시 추가 지불 비용은 평균 16만원 지불하였으며, 1만원~10만원 미만(49.4%), 10만원~20만원 미만(20.5%), 40만원 이상(10.6%), 30만원~40만원 미만(10.0%), 20만원~30만원 미만(6.8%), 1만원 미만(2.8%) 순이었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16.74만원)이 남성(14.61만원) 대비 많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추가 지불 비용이 많았음. 연령대로는 만 40~49세(18.89만원), 자격유형별로는 법정 차상위계층(18.54만원)이 추가로 지불한 수강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요구

○ 평생교육바우처를 이용한 목적은 자기계발(39.9%), 자격취득(37.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력취득(12.4%), 교양교육(6.3%), 기타(3.8%)의 순이었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층은 자기계발(1순위), 법정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은 자격취득(1순위)이 가장 큰 목적이었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은 자기계발(1순위), 고졸이하는 자격취득(1순위)이 가장 큰 목적이었음

[그림 Ⅲ-5] 집단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목적

<표 Ⅲ-8> 평생교육바우처 이용목적 현황

[기준: %]

구분		학력취득	자격취득	자기계발	교양교육	기타
신청 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12.5	32.2	42.0	6.7	6.7
	법정차상위계층	10.8	42.4	41.0	5.0	0.7
	기타 저소득층	14.6	46.3	31.7	7.3	0
학력별	고졸이하	22.2	35.3	31.9	6.8	3.9
	대졸이상	4.8	39.4	46.1	5.9	3.7
계		12.4	37.6	39.9	6.3	3.8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c)

○ 평생교육바우처 수강 분야는 학력보완교육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학력보완교육 수강 비율은 2019년도 대비 2020년은 소폭 감소한 경향을 보임

○ 2020년도 수강을 기준으로 학력보완교육(39.3%)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업능력교육(18.7%), 문화예술교육(16.7%), 기타(14.9%), 인문교양교육(8.3%), 시민참여교육(1.4%), 기초문해교육(0.7%) 순이었음

<표 Ⅲ-9> 평생교육바우처 수강 현황

[기준: 개, %]

년도	구분	기초문해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교육	학력보완교육	기타	계
2019년	강좌 수	223	3,690	300	1,574	3,788	9,642	2,050	21,257
	비율	1.0	17.3	1.4	7.4	17.8	45.5	9.6	100.0
2020년	강좌 수	350	8,196	704	4,042	9,147	19,231	7,300	48,970
	비율	0.7	16.7	1.4	8.3	18.7	39.3	14.9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c),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자료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전 평생교육 강좌 미수강 이유로는, 비용이 부담되어서(36.3%),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29.2%)가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해서(11.3%), 직장생활 또는 가정생활과 함께하기 부담스러워서(8.9%), 원하는 교육시간대를 찾기가 어려워서(6.1%),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에 드는 시간(강의시간, 통학시간 등)이 부담스러워서(5.3%),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해서(0.7%), 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절차가 복잡해서(0.7%) 순이었음

[그림 Ⅲ-6] 평생교육 강좌 미수강 이유

<표 Ⅲ-10>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전 평생교육 강좌 미수강 이유

[기준: %]

문항	비율
비용이 부담되어서/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36.3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	29.2
직장생활 또는 가정생활과 함께하기 부담스러워서	8.9
원하는 교육시간대를 찾기가 어려워서	6.1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해서	11.3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에 드는 시간(강의시간, 통학시간 등)이 부담스러워서	5.3
직장생활 또는 가정생활과 함께하기 부담스러워서	8.9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해서	0.7
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0.7
기타	1.5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b)

○ 평생교육바우처 미이용자수는 2018년도 33.5%, 2019년도 21.4%이었음. 평생교평생교육바우처 미이용자수는 2018년도 33.5%, 2019년도 21.4%이었음. 평생교육바우처 수혜자의 바우처 미수강 이유로는, 사용법은 알지만 수강희망 강좌가 없어서(36.3%)가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사용법도 알고, 수강희망 강좌도 있지만, 기타 이유로(20.7%), 사용법도 알고, 수강희망 강좌도 있지만, 사용기관이 아니라서(17.4%), 사용법도 알고, 수강희망 강좌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16.9%) 순이었음

<표 Ⅲ-11> 평생교육바우처 수혜자의 바우처 미사용 이유

[기준: %]

문항	비율
바우처 사용법을 잘 몰라서	9.4
사용법은 알지만, 사용하기 불편해서	5.5
사용법은 알지만, 수강희망 강좌가 없어서	21.4
사용법도 알고, 수강희망 강좌도 있지만, 사용기관이 아니라서	17.4
사용법도 알고, 수강희망 강좌도 있지만, 금액이 부족해서	16.9
사용법도 알고, 수강희망 강좌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8.8
사용법도 알고, 수강희망 강좌도 있지만, 기타 이유로	20.7
소계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만족도

□ 평생교육바우처 만족도 분석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3개년 평균(2018년~2021년) 이용 만족도는, 지속적 이용의향(4.60점), 서비스욕구도(4.54점),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4.30점), 타인추천 의향(4.2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에 비해 지원금 적절성(3.04점), 이용기간 충분성(3.35점), 강좌/기관 정보제공 충분성(3.43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평생교육바우처에 선정되고 이용경험에 대한 만족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나, 지원금, 이용기간, 강좌/기관 정보 등의 운영기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만족 수준이 낮은 편이었음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에 대한 항목별 만족 수준은 해마다 소폭 상승한 편이었으나, 지원금 적절성에 대한 만족 수준은 2019년 대비 하락하였음

[그림 Ⅲ-7] 연도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만족도

<표 Ⅲ-12>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만족도 연도별 현황

[기준: 점/ 5점 만점]

항목		2018년	2019년	2021년	3개년평균
신청과정	신청·발급 절차의 용이성	3.85	3.97	4.17	4.00
이용과정	희망 강좌 수강	3.79	3.98	4.39	4.05
	지원금 적절성	2.81	3.24	3.07	3.04
	이용기간 충분성	3.02	3.49	3.55	3.35
상담 및 정보	강좌/기관 정보제공 충분성	3.23	3.51	3.55	3.43
	민원처리 신속성	3.65	3.77	3.99	3.80
전반적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3.82	3.93	4.18	3.98
	타인 추천 의향	4.18	4.14	4.49	4.27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4.21	4.16	4.53	4.30
	서비스 욕구도	4.56	4.33	4.73	4.54
	지속적 이용 의향	4.64	4.38	4.78	4.6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b),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 평생교육바우처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사항은 교육기관 확대(42.6%)가 응답자의 절반 수준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다음으로 지원금액 확대(14.8%), 홍보 및 안내(10.9%), 사용범위 확대 및 잔액관리(7.8%), 사용기간 확대(7.0%), 교육기관 관리(5.2%), 문의상담(3.5%), 카드발급 시기(3.0%), 대상자 선정 확대(2.6%) 및 기타(2.6%) 순이었음

<표 Ⅲ-13>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제도 개선 요구

[기준: %]

내용	비율
지원금액 확대	14.8
교육기관 확대	42.6
사용기간 확대	7.0
교육기관 관리	5.2
홍보 및 안내	10.9
사용범위 확대 및 잔액관리	7.8
대상자 선정 확대	2.6
카드발급 시기	3.0
문의 상담	3.5
기타	2.6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c)

○ 신청단계에서 접수방법으로 온라인 접수(94.8%), 기관은 기초 지자체 단위 학습관(54.7%)을 가장 선호하였음. 사용단계에서 학습설계 및 상담 제공(48.9) 및 프로그램 운영시간 다양화(31.1%), 학습상담기관으로는 참여할 평생교육기관(44.8%)을 가장 선호하였음

<표 Ⅲ-14> 선호 요구조사

[기준: %]

내용		항목	비율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94.8
		방문 접수	5.2
	선호 기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22.7
		기초 지자체 단위 학습관	54.7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4.7
		동주민센터 또는 면행정복지센터	5.5
		기타	12.4
사용	희망 사항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11.6
		프로그램 다양화	4.5
		프로그램 운영시간 다양화	31.1
		학습설계 및 상담 제공	48.9
		어려운점 없음	3.9

	학습 상담 선호 기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24.3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6.3
		기초 지자체 단위 학습관	11.3
		참여할 평생교육기관	44.8
		기타	3.3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c)

라.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성과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성과 분석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한 이후에 인지하는 성과로 3개년 평균(2018~2020년) 평생교육 지속참여 의향(4.57점), 학습참여의 가치도 인식(4.50점)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학습참여의 가치도 인식 및 평생교육 지속참여 의향은 2020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2019년도에 소폭 하락하였다가 상회하였음

<표 Ⅲ-15>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성과

[기준: 점/5점 만점]

문항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 평균
학습참여의 가치도 인식	4.49	4.32	4.69	4.50
평생교육 지속참여 의향	4.58	4.38	4.75	4.57
자기계발 기여도	4.31	-	-	-
취업/이직/창업 기여도	3.55	-	-	-
직업지식 및 기술향상	3.86	-	-	-
일자리 유지 기여도	3.41	-	-	-
직업적 역량 향상	3.48	-	-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b).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 평생교육바우처가 평생교육 참여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추첨선발 집단과 추첨탈락 집단을 비교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이 증가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추첨선발 집단이 추첨탈락 집단보다 수강 강좌 유형 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직업교육분야 세부 강좌 유형별 효과로는 자격증 인증 과정(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등) 6.1%p 유의하게 참여율 증가 효과가 나타났음

<표 Ⅲ-16> 평생교육바우처의 인과적 효과(직업교육분야 강좌 수강 여부)

[기준: 개]

내용		추첨선발	추첨탈락	차이	P값
강좌수강 여부		.744	.503	.241	0
수강한 강좌유형 수		1.145	.992	.153	.019
유형별	외국어 자격증 강좌(토익, 토플 등)	.033	.037	-.004	.573
	컴퓨터 자격증 강좌(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111	.111	0	.978
	자격증 인증 과정(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등)	.242	.181	.061	0
	취업 및 창업 준비과정(공무원 시험 대비반 등)	.057	.048	.009	.302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직무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	.027	.033	-.006	.425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내용을 재구성함

○ 평생교육바우처가 강좌 수강 관련한 월평균 지출액의 차이는 추첨선발 집단이 추첨탈락 집단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직업교육분야 세부 강좌 유형별 효과로는 자격증 인증 과정(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등) 2.114만원 유의하게 참여율 증가 효과가 나타났음

<표 Ⅲ-17> 평생교육바우처의 인과적 효과(직업교육분야 수강 관련 월평균 지출액)

[기준: 만원]

내용		추첨선발	추첨탈락	차이	P값
전체 월평균 지출액		24.500	15.200	9.220	0
유형별	외국어 자격증 강좌(토익, 토플 등)	.599	.380	.219	.195
	컴퓨터 자격증 강좌(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2.310	2.058	.252	.452
	자격증 인증 과정(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등)	6.994	4.880	2.114	.001
	취업 및 창업 준비과정(공무원 시험 대비반 등)	1.507	.965	.542	.043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직무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	.487	.348	.139	.443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내용을 재구성함

제3절. 평생교육바우처 전문가 FGI

가. 분석 개요

○ 분석 목적 : 서울시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 방법 :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실시함

○ 조사 일정 : 7월 20일(수)

나. 조사 대상 및 내용

○ 대상 선정 :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5인 및 교육경비 관계자 3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 분석 내용 : 지원 내용 및 대상, 방식 및 절차, 규모 등 의견 수렴

구분	특성	선정 목적	선정 대상
그룹1	교육경비 관계자	• 교육경비(장학금) 관련 사업의 운영 사례 및 이슈 파악 • 서울시 운영 방향의 적절성 논의	• 관계자 3명 (국평원, 지자체 실무진) • 서면 및 비대면 인터뷰
그룹2	시민 전문가	• 교육경비 사업의 니즈 파악 • 서울시 운영 방향의 적절성 논의	• 각 분야 전문가 5명 (직업교육, 시민/평생교육, 직업훈련교육기관) • 서면 및 비대면 인터뷰

[그림 Ⅲ-8] FGI 조사 대상 및 내용

○ 전문가 명단

분야	성명	소속
시민 전문가 그룹	이00	평생교육연합회 이사
	우00	청년교육가
	강00	씨앤시 대표이사
	안00	LG전자 러닝센터 부장
	한00	삼성서울병원 부장
교육경비 관계자 그룹	변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
	신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실장
	박00	화성시 다원이음센터장

○ 분석 내용 : 교육경비(장학금)' 사업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지원대상, 선발 방법, 지원내용, 지원분야, 학습관리, 기관관리)을 단계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그림 Ⅲ-9] FGI 조사 내용

다. 분석 내용

<표 Ⅲ-18> FGI 분석 내용

단계	교육경비 관계자	시민 전문가	시사점
지원대상	• 전국 대상이므로, 지원 취약계층에서 시(동,읍,면)단위 사각지대가 있음.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찾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음(국평원) • 사업초기에 '청년'을 대상으로 타켓으로 하였는데 '역차별'이라는 연령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 중년층은 시대적으로 '배울 기회'가 부족했는데, 바우처 지급 에서도 제외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음(화성)	• 바우처사업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차별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국평원, 지자체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음 • 예산 집행에서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함. 예산항목이 평생학교육경비(장학금) 에서 집행된다면 예산 범위와 집행방식에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 오세훈 시장의 시정 정책 참고하면 좋을 듯함. '약자동행지수',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 지원	• 교육경비 지원 사각지대를 찾아야 함 • 특정 대상을 타켓하여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오세훈 시장의 시정 정책과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선발방법	• (국평원) 시행 첫해 구/동단위 홍보가 어려웠음 • (화성) 첫 해 흥행이 다소 부족했음(예산 5억, 시행 1억) • 지원자가 본인 소득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면 지급 대상 선정 등이 수월할 것임 •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보건복지부)' 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자격 요건을 판단하고 있음	• 모집 시 자치구와 협력 운영도 좋을 것임. 관심이 있는 자치구와 우선적으로 협력(대응)해서 운영 후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면 좋겠음 • 선발은 바우처 수혜자와 비수혜자 중 어떤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임 • 바우처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지원하는 방향이 맞을지, 아니면 더 폭넓게 소외	• 시행 1차년도는 시민에게 사업 홍보가 특히 중요함 • 타 기관 및 자치구 (주민센터 등)와의 협업이 필요함 • 우선 순위 선정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 검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행복망)' • 추첨 절차에서는 외부 인원을 초대, 공개 추첨하고 있음	계층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지원내용	• 평생교육 바우처는 '교육'이라는 목적에 맞춰 지급하기 때문에 이슈는 될 수 있지만 사용처가 명확함(국평원) • 결제 수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선결제 후지급)(화성) •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함(지역 화폐, 포인트 지급 형태 등 고려) • 화성시는 배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았음. 교육기관이 많지 않아 사용처에 대한 불만이 일부 있었음. 교육 가맹점을 확대할 필요 있음	• 바우처는 1인당 35만원으로 수강료(교재비, 재료비)로 책정되어 있으나, 생색내는 정도로 여겨지며 크게 확대되고 있지 못함. 교육경비(장학금)라는 명목으로 지급된다면 실제 자격증(국가/민간) 또는 학자금을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지원방식은 카드발급의 형식을 활용하되 학습 후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사용기간은 1년 정도가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음	• 실질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지원금 확대가 필요함 • 지원금(바우처)은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고려해야 함 • 교육 가맹점 확대에 대해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
지원분야	• 고용노동부는 직업 훈련 중심이지만, 바우처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므로, 교육 기관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 교육을 들을 수 있음(장점이자 단점임) • 사용기관에 대한 범주화를 설정하고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평생학습 장학금 대상 선정 및 지원을 위한 근거(조례, 개인정보관리방안 등)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중장년 취약계층 대상 직업 전환을 위한 재교육 및 디지털 사회 대비 미래교육은 절실한 시점이므로 실효성 있음 • 소상공인 창업을 할 때 재무적인 부분, 마케팅적인 부분들, 블로그 관리 등 실질적인 부분의 교육이 필요해 보임 • 40대 후반~50대 중반 넘어가는 사이에 퇴직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한 평생 교육 수강 커리큘럼이 많이 부족해 보였음. 청년 세대의 창업(창조,도전)과 50대 창업(안정)의 특성	• 중장년 취약계층의 직업전환 재교육은 시기적으로 필요함 • 취/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중장년 취/창업 특성이 반영된 교육이 필요함

		은 다름 • 공공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데이터 분석가(Citizen Data Scientist)' 양성도 필요함	
	•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독려를 위한 상담과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며, 평생교육 전문가, 콜센터 등 학습지원 관리 인력 확보가 필요함 • 장학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근거 및 시스템 마련되어야 함	• 전문적인 학습 관리 인력이 필요함. 과정 이수 전에 모든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학습상담(자기이해, 직업탐색 등)을 통해 자기주도성과 학습몰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이수하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습 퍼실리테이터'를 지정받아 케어받을 수 있도록 하면 탈락율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전문적인 상담과 컨설팅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학습지원 관리 인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 •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기준 및 관리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기관관리	• 가맹점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지자체 자체 행정력으로는 조금 부족 • 교육기관 관리에 있어 어려운 점 또한 존재함. 기관 모니터링을 5개 정도 진행중 • 과장 광고, 허위 광고 등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음. 학사관리, 출결 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기관 또한 존재함. 가이드라인 및 시행규칙, 고시를 개정하면서 진행 예정	• 질 관리 부분에서는 기관 자체에 대한 감사 체계, 콘텐츠에 대한 감사 체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 • 기관을 3년에 한번씩 인증한다든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인증하는 등으로 교육의 퀄리티를 유지 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관리는 '학습퍼실리테이터' 배치하여 모든 학습자를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케어하고 사업의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안내 및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임	• 교육 컨텐츠 질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함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및 가이드 수립이 필요함

Ⅳ

정책방향 및 전략

제1절. 평생학습 교육경비 정책방향 설정

제2절. 정책 추진전략

Ⅳ 정책방향 및 전략

제1절. 평생학습 교육경비 정책방향 설정

가. 정책수립 배경

□ 재교육과 미래교육을 통한 위대한 리셋(reset), 서울

○ 쌍둥이 전환(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에 의한 직무와 숙련 변화가 일어남. 세계경제포럼(WEF, 2021)은 앞으로 사람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기술 중 42%가 변화하고,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판매, 인적자원, 돌봄, 교육 관련 기술도 대인관계 기술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2028년까지 전 세계 모든 직업의 3분의 1인 10억 개 이상 일자리가 기술에 의해 변화할 것으로 예측함

○ 서울시민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숙련도가 디지털 전환 및 녹색 전환 등에 의해 전보다 빠르게 퇴화하고 있음(de-skilling

○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은 변화된 노동과정에 맞게 새로운 숙련을 습득하는 재교육(re-skilling)을 받거나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 일하기 위해, 전보다 더 높은 숙련을 필요로 하는 숙련격차(skill gap)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숙련향상, 즉 미래교육(up-skilling)을 필요로 함(반가운 외, 2021)

○ 세계경제포럼(WEF)은 연장이 바뀌면 목수의 기술도 바뀌어야 하듯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숙련 유형이 급변함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은 고용상태를 유지할 뿐 아니

라 자신들의 고용기회를 극대화 해줄 보상적 경력과 성취적 경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Re-skilling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함

○ 인류의 문명사는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 교육과 기술 간 경주에서 이겨야 사회적 고통에서 사회적 번영으로 갈 수 있으며(Schleicher, 2016), 서울시는 시민들의 재교육과 미래교육을 통해서만 서울의 위대한 리셋(Great Reset)을 이룰 수 있음

□ 시민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통한 공정한 교육의 미래(Future Skills), 서울

○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위기로 직업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노동의 질 개선,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택권과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전 세계적 과제임(UNESCO, 2021)

○ 긱 경제(Gig economy)의 부상과 함께 비공식 경제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새롭게 형성되는 고용모델은 시민들의 재숙련과 숙련도 향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학습자들이 기관과 프로그램에 접근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워 정규직업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 환경과 기술적인 도전이 교차하는 시기에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재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내일의 교육은 사회 전체의 참여와 공헌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하는 데 두어져야 함

○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는 지식공유제(knowledge commons)에 접근하고 기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모든 시공간에서 교육이 더욱 확장되고 풍요로워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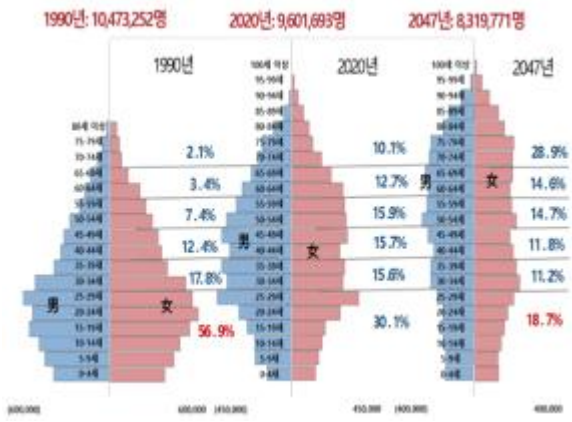
□ 구조적 연령차별 해소를 통한 연령통합(Age Intergration), 서울

○ 서울시의 달라지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이는 교육, 일, 여가별 연령차별사회에서 교육-일-여가의 연령통합사회로 전환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Riley & Riley,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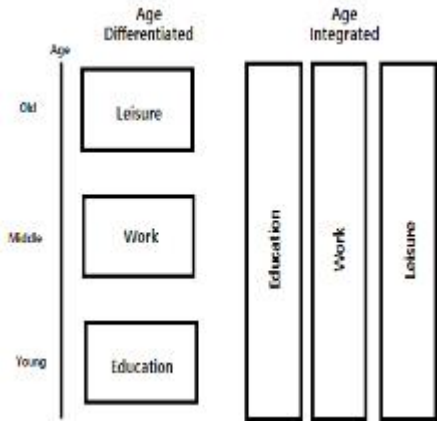
○ 청년, 중장년, 노년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재상상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의 사회계약이 필요한 단계임

○ 즉, 교육이 개인이 품위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재상상(reimagining)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임 (UNESCO, 2021)

<서울시 장래인구추계>



<서울시 장래인구추계>



자료 : 통계청(기준: 2021년 2/2분기)

[그림 Ⅳ-1] 서울시 인구변화와 연령통합사회의 형태

나. 정책방향 설정

□ 존재의 학습(learning to be)에서 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come)으로 전환

○ 평생교육의 전통적 학습영역은 인문학적 존재하기 위한 학습, 지식 자체를 알기 위한 학습, 앎을 통해 실천하기 위한 학습,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기 위한 학습 등 4가지의 학습기둥으로 설명되었음

○ 이는 학습의 기본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성인학습자들은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되기 위한 목적을 구상하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목적은 직업으로 표출되기 마련임

○ 학교교육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학생들의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교육은 목적 자체라기 보다 직업과 진로교육의 통로가 되는 것이며,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개발이 되고 있음

○ 특히, 과학기술의 진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교육의 미래, 즉 미래교육은 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인 직업역량교육이 될 것임(UNESCO, 2019)

○ 이에 따라 서울시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동안 숙련 향상교육, 재교육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시민들이 변화를 주도적 기회로 활용, 시민역량 제고를 위해 모든 시민의 학습 참여 중요성을 증대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ILO, 2019)

○ 또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도록 시민의 학습 선택과 책임감 강화, 학습취약계층의 참여동기 부여, 평생교육시장의 경쟁 촉진 등 꾀할 필요가 있음(OECD, 2019)

□ 평생교육 바우처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된 사업 전개

○ 1950년대 중반 미국의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에 의해 제안된 바우처 제도는 서구 사회에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음(강대중, 2017)

○ 바우처(voucher) 방식의 급여는 수급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급여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는 현금급여나 급여의 원래 목적성에 부합하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쉬운 현물급여의 단점을 보완하는 절충식 제도임

○ 즉,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급여의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목적 달성에 유리하면서도 수급자가 제한된 용도 안에서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가적 이익을 가져옴(박윤수 외, 2021)

○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가 2018년에 평생교육 바우처를 도입하면서 이를 통해 학교 교육 이후 단계에서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을 제시한 바 있음

○ 평생교육 바우처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 변화에 의한 평생교육 참여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에 따라 바우처 방식의 교육훈련제도로 시행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18년 도입시기에 5천 명을 시작으로 2022년 3만 명까지 지원 인원수를 늘려왔음

○ 바우처 사용기관은 사업 초기에 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과정 운영기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과정 운영기관 등으로 한정되었지만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2019년 이후로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시간제등록제 운영 대학 등으로 확대되었음

○ 평생교육 바우처는 이와 같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국민으로 확대)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바우처 이용자의 교육투자가 월 평균 2만 5,600원 증가하고, 학습참여율이 9.8% 포인트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몇가지 문제점도 노출하였음

○ 바우처 지원은 지원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추첨식으로 선정자를 선발하여 이용권을 발행하는 선지급 방식이다 보니 공공 서비스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책임성 부족, 바우처 사용기관인 교육기관들의 서비스 질 저하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1인당 35만 원 가운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평균 20만 2,945원에 그치고 있으며, 바우처 사업의 주요 목적에 해당되는 이용자들의 학력 향상, 사회참여 증가, 직업능력 향상 등 개인적·사회적 성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박윤수 외, 2021)

○ 또한 평생교육 바우처는 이용자들에 대한 상담 및 멘토링 기능이 없이 사용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방식으로 공적 서비스의 책임성을 부가하는 반면 사용기관에 대해서는 이용권의 부정사용과 기관 및 강좌 홍보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에서 제한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청정보 제공 충분성, 이용권 이용 용이성, 민원 처리

신속성, 담당자 전문성 및 지원 등에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서울시의 평생학습 교육경비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개선된 사업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 평생교육 바우처에서 시민 참여장학금으로

○ 본 연구는 평생교육 바우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개념의 참여소득을 검토함

○ 참여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만 이러한 소득 개념과는 달리 수혜자에 대한 지급 조건으로 참여라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Atkinson, 1996)으로 빈곤 감소를 위한 소득안전망과 사회보장제도로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필요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함(Pérez-Muñoz, 2016)

○ 조건을 충족하는 참여의 형태는 직업훈련 및 교육에서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 자원봉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평가되는 활동을 포함하며, 이러한 참여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충족될 수 없는 사회적 욕구에 대한 유의미한 활동으로 노동을 확장하는 충분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

○ 즉, 참여소득은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참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지급 대상과 관련한 문제에서 논쟁의 여지가 적고, 노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작다는 점에서 정치적이고,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가 보다 수월함(한권탁, 2020)

○ 이와 같이 참여소득은 개인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현금성,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는다는 보편성, 공공부문의 기여를 의미하는 공공성,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역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문성호 외, 2021)

○ 서울시 평생학습 교육경비는 시민들이 향후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

이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노동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참여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에 해당되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되고 싶은 것이 가능하도록 기회와 자유를 부여하는 캐퍼빌리티의 확장(이상준, 2021)에 기여하게 될 것임

❍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자동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임노동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참여소득은 개인의 정체성, 소속감, 자아실현을 행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소득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제공하는 학습활동을 참여장학금으로 정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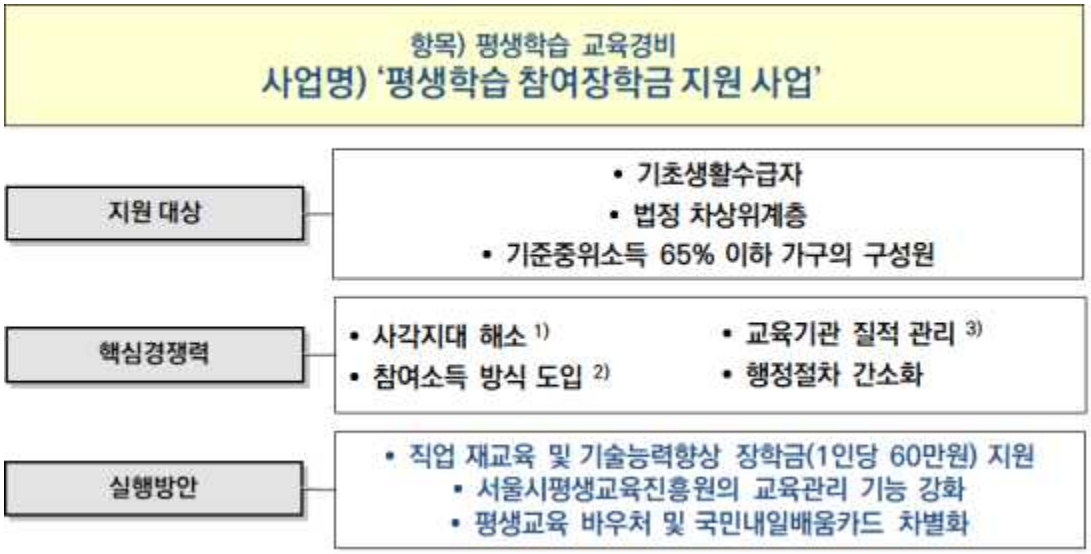
❍ 이러한 참여장학금은 바우처 방식에서 필요로 하는 카드발급으로 인한 행정불편을 감소시키는 한편 직업 재교육 및 기술교육의 용도 안에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교육 바우처의 한계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장점이 있음

제2절. 정책 추진전략

가. 사업 정의

□ 평생학습 참여장학금 지원 사업

○ 본 사업은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의 선별지원으로 인해 학습비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교육 및 직업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제공, 직업전환 및 취창업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는 '평생학습 참여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1) 중앙정부의 교육급여(평생교육 바우처) 지급이 미치지 못하는 대상을 지원
2) 사업 목적에 따라 학습활동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
3) 교육기관 검증을 통한 질관리로 사업 효과성 증대

[그림 Ⅳ-2] 서울시 참여장학금 사업 정의

○ 평생학습 참여장학금은 평생교육 바우처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교육급여의 목적을 직업과 관련한 재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으로 제한하고, 지급 방식을 선지급이 아닌 참여

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 정합성을 높인 것이 특징임

○ 서울시 평생학습 교육경비로써 참여장학금은 사업 초기엔 충분한 예산과 교육공급기관 확보가 용이치 않은 만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통해 점차 수혜자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교육의 장학금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는 민선8기 서울시의 정책기간인 2026년 상반기까지를 1차적인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사업의 개념과 특성을 규정짓고자 함

○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평생교육 바우처와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구성원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서울시 거주자로 한정함

□ 사업 특성과 실행 방안 개요

○ 서울시 참여장학금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크게 4가지로, 첫째 사각지대 해소는 중앙정부의 교육급여,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이 미치지 못하는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참고로 평생교육 바우처는 예산지원의 한계, 무작위 추첨식 선별지원으로 인해 최근 2년 간(2021-2022) 서울시 신청자 1만 9,232명 가운데 56.6%인 1만 878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

○ 둘째, 참여소득 방식 도입은 참여장학금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으로 수혜자에 대한 지급 조건으로 참여라는 조건을 부과, 직업훈련 및 교육 참여라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통해 노동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셋째, 교육기관 질적 관리는 교육 서비스의 공급 측면을 형성하는 교육기관들을 사업 목적에 맞게 준시장 형태로 구성하고, 서울시의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급자들의 교육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는 평생교육 바우처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사용자들이

카드 등록과 결제 등 바우처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기관의 교육 신청 및 이수만으로 급여 지급이 완료되는 시스템적 접근을 말함

○ 실행방안의 개요를 정리하면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직업 재교육 및 기술능력향상 장학금 60만 원 지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관리 기능 강화, 평생교육 바우처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차별화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 차별화 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에서 논의하도록 함

나. 차별화 전략

□ 약자와의 동행 : 취약계층의 재교육에 포커스

○ 민선8기 서울시 비전은 '공정 도시 서울'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음(서울시, 2021a)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약자동행 특별시'를 시정방향으로 제시,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불신을 종식하고 시민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바람에 충실한 시정을 이룰 것을 공표하였으며, 이를 실천할 교육시정은 차별 없는 교육환경으로 벌어진 교육격차를 더욱 좁혀나가는 것이 핵심적 정책임

○ 이와 같은 '공정 도시 서울' 비전과 '약자동행 특별시' 시정방향에 따른 교육정책의 지침은 누구나 쉽게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며, 평생교육정책은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침을 마련하는 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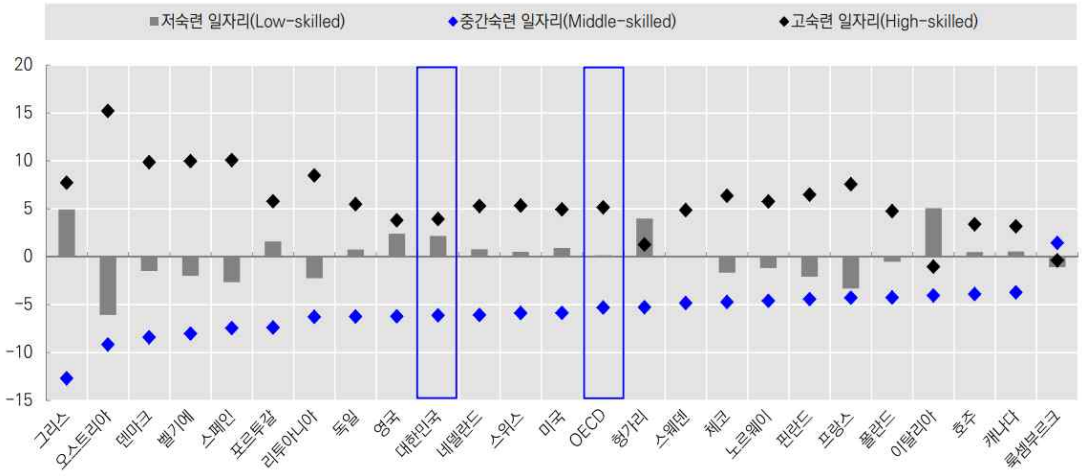
○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정책 방향에 따라 민선8기 서울시의 공약실천계획은 시민의 직업역량 강화 및 학점 취득 기회 확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등으로 구체화되었음

○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대상인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사업은 공약명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평생학습 정학금을 통한 학비 보조 추진'이며, 그 목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창업 준비를 위한 전문교육 훈련 경비 지원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추진임

○ 추진방향은 기술변화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학습수요 증대 및 미래 대응을 위한 학습 사다리 마련, 평생교육 바우처 등 선별지원으로 학습비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추가 지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수립 방향과 서울시 공약실천계획은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생학습 교육경비, 즉 평생학습 참여장학금은 '약자와의 동행 : 취약계층의 재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할 수 있음

○ 저소득 취약계층은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단순노무 및 판매직종의 저숙련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소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불안한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림 Ⅳ-3] 각 숙련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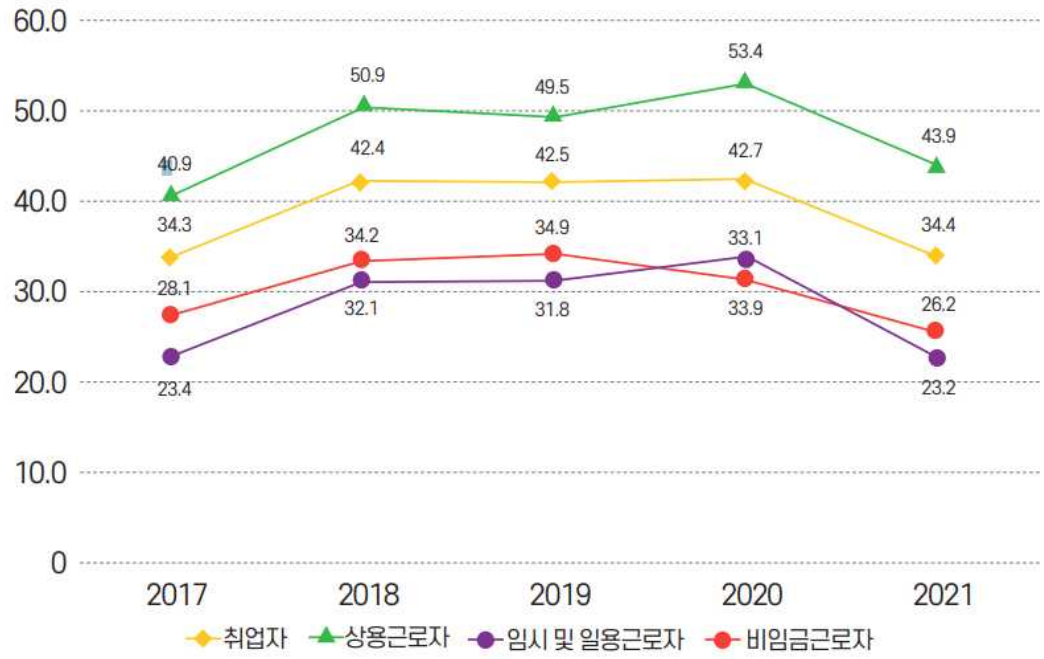
주 : 고숙련 직업군은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를 포함함
중숙련 직업군은 서비스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포함함
저숙련 직업군(ISCO88-5,9)은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포함함

자료 : OECD(2019), Empl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김종욱(2019) 재인용.

○ [그림 Ⅳ-3]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숙련 일자리 비중은 6.1%p 줄어든 반면, 저숙련 일자리 비중은 증가하면서 일자리 질 하락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sation)는 더욱 심각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4차 산업

혁명으로 일컫는 기술혁신의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위협은 저숙련 노동자에게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김종욱, 2019)

○ 이와 같이 기술발전에 의한 일자리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재교육 및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며, 일자리 관련 재교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숙련 노동자들이 교육 참가율도 낮고 교육 참여의사도 낮은 모습을 보임



[그림 Ⅳ-4] 각 숙련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22). KEDI BRIEF

○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평생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은 차이가 컸었는데, [그림 Ⅳ-4]와 같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그 차이가 더욱 벌어져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평생학습 참여율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2017년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상용근로자와 다른 고용형태의 근로자와 평생학습 참여율 차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남(정동

철, 2022)

○ 흔히 리스킬링(reskilling)이라 부르는 재교육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위해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업스킬링(upskilling)과 달리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스킬을 배우는 것을 말함

○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일자리 약자에 해당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다 높으 숙련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이자 평생교육의 사다리가 되어야 함

□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 서울시 참여장학금의 특성을 정립하고, 정책의 위상을 규명하기 위해 평생학습 교육경비에 해당되는 평생교육 바우처 및 국민내일배움카드와 비교함

<표 Ⅳ-1> 교육경비 지원정책 비교

구분	서울시 참여장학금	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목적	일자리 약자의 사회참여 촉진 및 공정한 미래교육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실현	자기주도적 훈련선택 보장
대상	저소득 계층	저소득 계층	모든 국민
지원금액	연간 60 만원	연간 35 만원	5 년간 300 만원
제공형태	참여 후 인증교육기관을 통한 지급	전자식 바우처 선지급	전자식 바우처 선지급
지원절차	신청→ 대상자 확인→ 미래기초역량교육 (진흥원) → (가칭)서울 평생교육인증기관 교육 참여→ 기관 확인→ 장학금 지급	시스템 가입→ 지원 신청→ 교육계획입력 (선택) → 자격확인→ 교육기관 신청→ 바우처지급 → 교육이수 확인	시스템 또는 고용센터 카드 발급→ 발급심사→ 체크카드 발급→훈련과정 신청→본인부담금 결제
교육영역	직업 재교육·기술 미래교육	평생학습 전 영역	직업훈련 및 개발
지원내용	교육 제반비지원 , 무료 미래기초역량 교육	교육 제반비지원	교육비 부분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 첫째, 정책목적에서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인 일자리 약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공정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 내의 교육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 평생교육 바우처와 국민의 자기주도적 훈련선택 보장

을 목적으로 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차이가 있음

○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투자만 있고, 소비적인 교육훈련이나 대안없는 일자리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생교육 바우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취미교양이나 학력보완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나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카드발급자 중 훈련실시자 비율이 45.9%에 머물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둘째, 공공서비스의 제공 형태에서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수급자들이 교육참여 후 인증교육기관을 통한 지급 방식을 취하는 반면 평생교육 바우처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전자식 바우처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취함

○ 이러한 차이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 참여장학금이 자산조사와 카드발급 등에 따라 수급자들의 행정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른 행정비용의 절감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지원자 신청, 대상자 확인, 기초역량교육, 인증기관 교육 참여, 기관 확인, 장학금 지급 등의 절차를 따른다면 평생교육 바우처는 시스템 가입, 지원 신청, 교육계획 입력, 자격 확인, 교육기관 신청, 바우처 지급, 교육참여, 교육이수 확인 등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시스템 또는 고용센터 카드발급, 발급 심사, 체크카드 발급, 훈련과정 신청, 본인부담금 결제, 교육참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참여장학금의 후지급 방식은 교육기관 인증을 통한 질 관리와 교육기관에 대한 적절한 유인 제공과 함께 기관의 부정사용 및 서비스 포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평생교육 바우처가 교육 공급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에 지급되는 카드비율이 각각 0.3%, 5.2% 수준으로 낮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법임

○ 또한 지원 절차에서 기초역량교육과 같은 중간 과정을 넣은 것은 취약집단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며, 참여소득 방식의 교육급여 지급 방식으로 개인 참여 의지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함임

○ 셋째, 교육영역에서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직업 재교육과 기술 미래교육으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반면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학습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즈는 직업훈련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 점에서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미래 평생교육정책 성공을 위해 저숙련 인구의 참여를 확대할 것과 프로그램 참여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단순하게 설계할 것을 요구한 OECD의 권고에 충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V

세부 추진계획

제1절. 사업 세부 추진방안

제2절. 중장기 발전방안

Ⅴ 세부 추진계획

제1절. 사업 세부 추진방안

가. 지원 대상자 설정

□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 서울시 참여장학금의 지원 대상자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의 선별지원으로 인해 학습비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으로 함

○ 이에 따라 수급자의 재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제공하여 직업 전환 및 취창업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평생학습 참여장학금의 핵심적인 목적임

○ 또한 지원 대상자를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의 미수급자로 하는 것은 서울시 참여장학금과 국가의 평생교육 바우처가 중복되어 예산낭비 등의 소지를 해결하는 측면과 저소득층의 교육급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해마다 실제 지원율이 하락하여 2019년 신청자 수 대비 지원자 비율이 78.7%에서 2020년 76.4%, 2021년 68.4%, 2022년 54.0% 등으로 감소하였음

○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발급인원이 2019년 6,401명에서 2022년 3만 9,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실제 지원율은 반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교육급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수급 대상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냄

<표 V-1>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현황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발급(지원) 인원	신청 대비 지원율
2019년	3,837	1,646	918	6,401	78.7%
2020년	5,867	2,327	2,180	10,374	76.4%
2021년	9,978	3,446	6,107	19,531	68.4%
2022년	16,224	4,993	17,783	39,000	54.0%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2) 내부자료

○ 이를 서울시에 적용하면,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는 2021년 5,726명에서 2022년 1만 3,507명으로 1년 만에 2.5배 증가하였지만 수급자는 2년 간 모두 합해 8,354명으로 전국 수급비율인 54.0%에도 못미치는 43.4%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인 1만 878명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됨

○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취약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교육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저숙련자까지 수급 범위를 확대

○ 서울시 참여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의 전 국민 확대 방침과 맞물려 사업 중복성이 발생하고, 참여장학금의 설계 목적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음

○ 교육부는 2023년 교육예산(안)을 통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예산을 2022년 141억 원에서 2023년 206억 원으로 65억 원 증액하고, 수급 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두배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는 평생학습 기회 보장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을 임기 내인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어서 교육급여정책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평생교육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또 다른 한편으로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기관으로 한 국가 주도의 평생학습 교육급여 사업을 시·도 광역지자체가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별로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기관으로 하여 교육기관을 운영·관리하는 방침을 마련, 2023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임

○ 이렇게 될 경우 서울시는 참여장학금과 평생교육 바우처를 동시에 운영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며, 사업 유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사업 간 차별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정책 개발 차원의 문제를 벗어나서도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저소득·저학력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급여정책의 관점을 저숙련자 대상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데이터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Ⅴ-1] 서울시 평생학습 참여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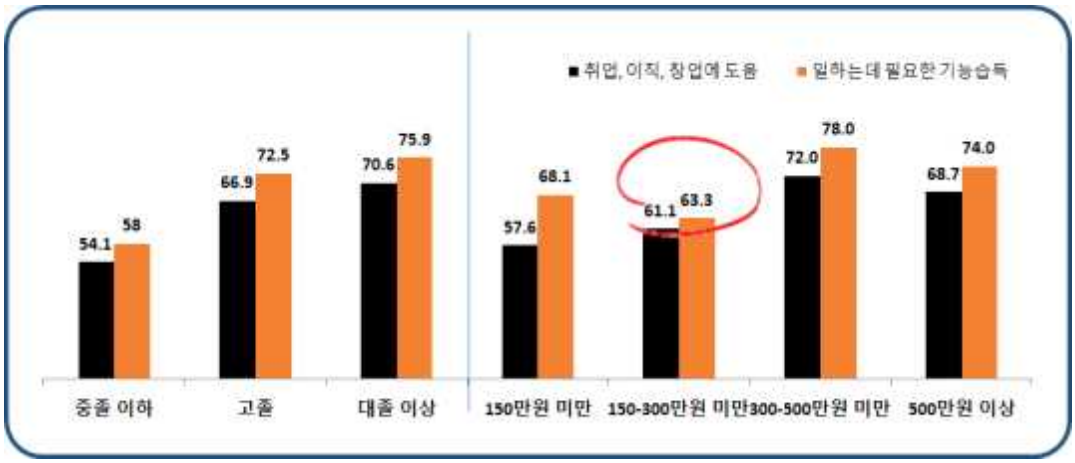
출처 : 2021년, 2019년 서울시민 평생학습 실태조사 결과(기준 : %)

○ 우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평생학습 참여율이 2019년 50.0% 대비 2021년 29.4%로 20.6% 포인트 감소하였지만 직업관련 평생교육은 같은 기간 4.0% 포인트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쳐 절대적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직업평생

교육은 저소득·저학력자에게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활동이 왕성한 35-44세와 취업자에게서 참여율이 가장 많이 떨어져 교육적 약자에 대한 관점이 재정립될 필요성을 보여줌

○ 다음으로 서울시민들은 평생학습 참여성과를 100점 기준으로 할 때 성과급이나 연봉 등 소득 증대는 63점, 취창업 및 이직에 도움이 69.1점 등에 비해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이 74.5점으로 직업평생교육을 통해 일을 위한 기능 습득, 즉 리스킬링 및 업스킬링을 충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은 시민의 경력개발이자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림 Ⅴ-2]의 학력별·소득별 평생교육 참여성과를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의 50% 이내인 100만 원 미만)와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의 100 ~ 120% 미만인 14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월소득 150만 원 미만 구간의 68.1점인 반면 중저소득자에 해당되는 월소득 150만 원 - 300만 원 미만 구간의 점수는 63.1점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Ⅴ-2] 학력별-소득별 평생교육 참여성과

출처 : 2021년 서울시민 평생학습 실태조사 결과(기준 100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Ⅴ-3]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지원(교육비용에서 정부의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와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에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캐

퍼빌리티와 교육적 자유가 공정하지 못한 대상은 중저소득자로, 고졸자와 중저소득자를 포함하는 저숙련자, 일자리 약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Ⅴ-3]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 비율 변화

출처 : 2019, 2021년 서울시민 평생학습 실태조사 결과(기준 %)

○ 이와 같은 서울시 저숙련자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530만 명(취업자 510만 명과 실업자 20만 명) 가운데 임금 근로자 420만 명 중 저숙련의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17만 명, 자영업자 90만 명 중 고용원이 없는 무급 가족종사 자영업자 65만 명, 일자리에서 소외된 실업자 20만 명 등으 약 200만 명으로 산출해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가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등의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자가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원을 얻는다면 저숙련자는 상대적 소득 수준 등의 이유로 인해 교육급여 지원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며,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일자리 약자에게 일의 캐퍼빌리티를 높이는 평생교육의 사다리, 직업전환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스위치가 되어야 함

○ 문제는 행정 차원의 저숙련자의 증빙인데 여러 가지 정부지원사업들을 확인한 결과, 저숙련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으로, 무급 가족종사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가족관계증명원 등으로, 장기실업자는 연소득증명,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 확인 등으로 증빙할 수 있음

[그림 Ⅴ-4] 중장기적 관점의 서울시 참여장학금 지원 대상

나.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

○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시민들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평생학습에 참여토록 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획득하여 직업전환 및 취창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평생학습의 행정주무부서인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맡고 있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정책과 법령 및 조례 정비, 제도 개선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민선 8기 서울시의 공약사업인 평생학습 장학금 사업의 행정지원체계를 갖추는데 적합하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장이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로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

계체계 구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을 맡고 있어 참여장학금 사업의 운영체계를 구성할 책무성을 갖추고 있음

[그림 Ⅴ-5] 서울시 참여장학금 사업 추진체계

○ 이에 따라 서울시 참여장학금의 사업추진체계는 평생교육과의 행정지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운영, 서울시 소재 교육기관들의 교육공급 등 세가지 구성체계로 이루어지게 됨

○ 각각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생교육과는 사업계획 수립, 사회보장 신설 협의,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 사업 공고, 사업 신청 및 자격 심사. 수급자 선정, 참여장학금 지급 등에 있으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기관의 인증, 수급자 기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교육훈련 등록, 평가 및 이력관리 등을 수행함

□ 사업준비단계의 추진 절차

○ 사업단계는 사업준비단계와 사업운영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단계에 따라 추진체계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사업준비단계는 서울시 참여장학금을 사업화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로 2023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실행한다고 할 때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의 약 1년 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과업으로 이루어짐

○ 사업준비단계의 첫 번째는 평생교육과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업보장 신설 협의 및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익년도에 실행할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음

○ 두 번째는 서울시 평생교육과가 서울시 참여장학금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제도로 신설하는 절차가 필요함

○ 이 절차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013.1.27., 시행, 2012.1.26. 전부개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르며,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사회서비스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됨

○ 2022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변경사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서울시는 늦어도 익년인 2022년 6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완료하여야 함

○ 세 번째는 서울시 참여장학금을 합법화하고, 사업 운영의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으로, 이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함

○ 사업준비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일은 참여장학금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교육기관을 인증하는 작업과 참여장학금 수급자들의 기초역량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로 배정할 수 있음

○ 이상의 교육기관을 인증하는 것과 수급자 대상의 기초역량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참여장학금의 핵심 특성상 교육서비스의 질 담보, 교육기관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후지급 방식, 수급자들의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중장기 발전방안의 세부과제 내용에서 다루고자 함

□ 사업운영단계의 추진 절차

○ 사업준비가 이루어지고 사업운영단계로 들어서면 평생교육과는 공식적으로 서울시 참여장학금을 공고해야 하는데, 자체적인 공고 채널을 통해서 공고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협조공문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참여 촉진의 협력을 구하는 방식을 병행토록 함

○ 이상의 사업 공고는 정상적인 시기의 경우 연초에 해당되겠지만 2023년도로 예측되는 사업 원년의 경우 사업준비단계와 맞물려 하반기에 사업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실적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춰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사업 공고에 따라 잠재적인 수급자들의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고 이후 수급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통상적으로 사업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지만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사업 초기에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의 문제인데 참여장학금의 운영 및 일반 관리비를 사업 초기에 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운영기관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구조상 참여장학금에 간여할 인력이 부재하다는 점과 무엇보다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회보장시스템 접근에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지 않았다는 증빙이 평생교육 바우처 시스템과 연계하여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이 과정에서의 역할은 평생교육과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사업 초기엔 평생교육과가 수행하여 사업 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 수급자 선정 후 교육훈련 등록 등 수급자의 교육관리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것임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훈련 등록을 통해 수급자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수급자의 교육계획과 교육목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서울시민대학 기능을 이용하여 미래기초역량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급자의 참여 동기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

○ 다음으로 교육인증기관이 수급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수급자가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평생교육과가 참여장학금을 교육인증기관에 지급하고, 수급자의 이수 및 교육 만족도 평가 등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급자와 교육인증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임

다.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 사유

○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평생학습 진흥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 평생교육과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의 주무기관이 된다는 점 등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평생교육조례(조례명: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음

○ 첫째,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조문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진흥조례의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즉,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6. 8)고 하였으며, 해당되는 각 호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이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 둘째,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조례는 현재에도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항에서 경비 지원에 관한 조문을 명시하고 있는 바 평생학습 교육경비와 관련된 세부 문항 삽입으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조례의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는 “① 시장은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자치구,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8.10.4.)고 명시하고 있음

○ 셋째, 서울시 참여장학금 사업을 시행시 사업운영기관이 되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명목 추가가 필요함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현재 조례의 제18조(사업)은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각 호는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5.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6.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7.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9.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10. 자치구 및 평생

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11.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2.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임

□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안) 내용

○ 이상의 개정 사유에 따라 조례 개정에서 추가되어야 할 조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에 "시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함

○ 이는 평생교육법 제16조의 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조문을 활용한 것으로, 서울시 참여장학금이 수급자의 교육 이수 후 교육인증기관에게 비용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미 평생교육진흥조례의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는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시민들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문항만으로 충분히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제18조(사업)에 진흥원의 사업으로 "평생교육 경비 지원"이라는 조문을 신설함

○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가운데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의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함임

라. 참여장학금 소요비용 산정

○ 참여장학금을 서울시에서 사업화할 때 필요한 소요비용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학금 수혜자의 규모(장학금 지급 수요량)와 장학금 액수의 곱으로 산정되며,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장학금 지원에 투입될 전

담인력의 인원수와 급여, 홍보비 등 경비, 필요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될 비용 등으로 산정될 것임

○ 큰 틀에서는 버텀업 방식으로 이러한 범위의 비용이 모두 산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전체 예산계획 안에서 평생교육 예산으로 세부적으로 조정되는 탑다운 방식의 비용 산정이 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라 교육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특정한 기준값이 없이 소요비용을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음

○ 서울시의 현재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변수는 교육지원과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인력풀 및 예비 경상비와 평생교육포탈 등 기존에 운영되어 온 시스템 운영 여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공예산의 특성상 서울시 참여장학금의 예산은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편성될 수 있겠음

○ 우선 장학금 지원에 소요되는 전담인력은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4명 가운데 교육기관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평균 1.5명으로 서울시 참여장학금이 교육지원과의 행정지원에 적지않은 비중이 설정되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기관의 인증과 관리, 교육프로그램의 질 관리에 집중한다고 할 때 최소 1명의 경력직 전담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인력에 대한 비용은 진흥원의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홍보비 등 경비와 시스템 운영비는 2023년 1차 시범사업 이후에 사업운영 평가와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운영계획을 통해 2024년부터 책정하여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투입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과 맞물려서는 기존의 경비와 평생교육포털 시스템을 활용하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가장 중요한 장학금 지급규모와 관련해서는 목표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며, 서울시 참여장학금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임기기간 중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음

❍ 2022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에 탈락하는 인원은 7,000명 선으로 이를 목표인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시범사업부터 민선 8기 임기 내인 2026년까지 누적하여 7,0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시계열적으로 제시하면 2023년 시범사업으로 500명, 2024년 1,500명, 2025년 2,000명, 2026년 3,000명 등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경우 7,000명의 누적인원이 형성되게 됨

❍ 마지막으로 장학금 액수는 서울시민의 연 평균 교육비 41만 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비 연 35만 원, 기초지자체 사례에서 파악된 장학금 25만 원, 고용노동부 전국민내일배움카드 5년 간 300만 원 등 여러 가지 기준치들을 활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참여장학금이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직업기술교육의 참여를 통한 직업전환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훈련교육의 시장가격인 연 100만 원의 공공지원비율인 60% 수준으로 60만 원을 책정할 수 있으며, 이는 참여장학금의 교육특성과 유사하게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민내일배움카드의 연간 지원비용과 동일한 것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참여장학금의 소요비용을 2023년 3억 원, 2024년 9억 원, 2025년 12억 원, 2026년 18억 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전담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해당 기관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연동하여 확보할 것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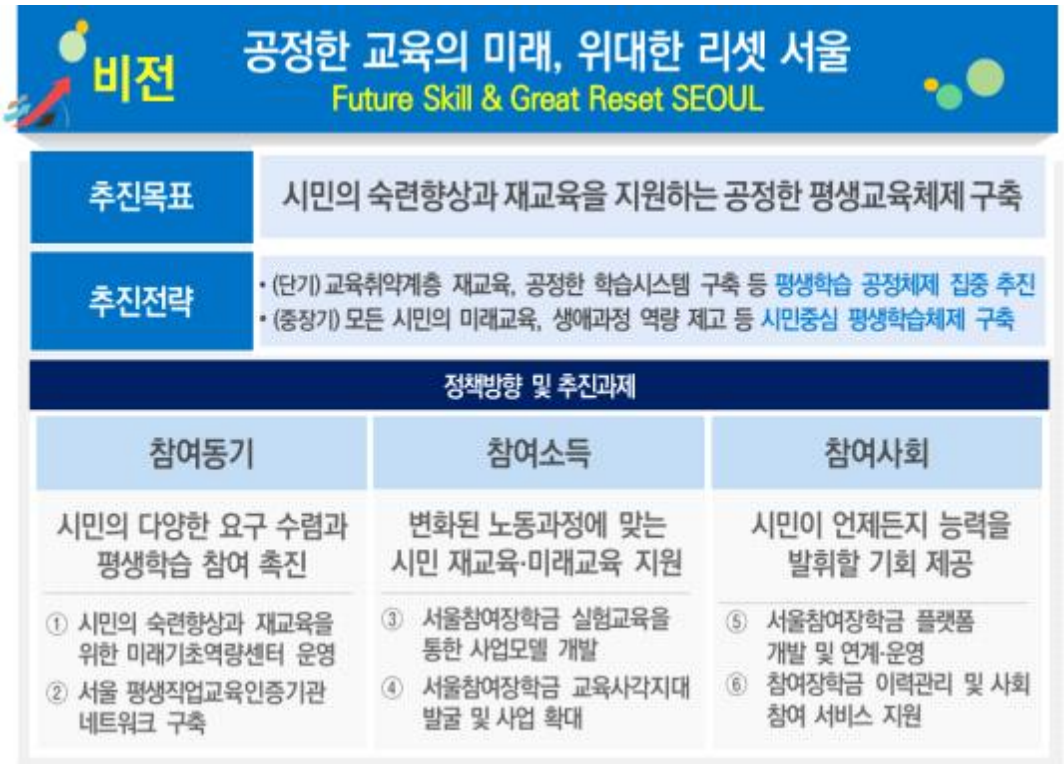
제2절. 중장기 발전 방안

가.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 공정한 교육의 미래, 위대한 리셋 서울

○ 서울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평생동안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교육의 미래를 서울시 참여장학금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며,

○ 시민들의 재교육과 미래교육을 통해서만 기술의 격차를 해결하고 사회적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서울의 위대한 리셋을 이루고자 함



[그림 Ⅴ-6] 비전 및 추진전략

□ 추진목표 : 시민의 숙련 향상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공정한 평생교육체제 구축

○ 공정한 교육의 미래, 위대한 리셋 서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체적 방법은 공정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약자와의 동행, 취약계층의 재교육을 통해 직업전환 및 취창업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는 평생교육의 사다리가 될 것임

○ 따라서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시민의 숙련향상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모범이 되어 공정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첨병이 되는 것임

□ 추진전략

○ 민선 8기 임기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론 교육취약계층의 재교육, 공정한 학습시스템 구축 등 평생학습 공종체제를 마련하는 데 집중적으로 추진함

○ 중장기적으론 모든 서울시민의 미래교육, 생애과정 역량 제고 등 시민중심의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데로 나아감

□ 정책방향

○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참여동기, 참여소득, 참여사회 등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그림 Ⅴ-7] 서울시 참여장학금 지원정책 방향

○ 첫째, 참여동기는 서울시민의 다양성에 기반한 시민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직업훈련 및 재교육의 다양한 요구 수렴과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의 숙련향상과 재교육을 위한 미래기초역량센터를 운영하고, 서울 평생직업교육인증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함

○ 둘째, 참여소득은 시장에서 기업가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사회적 요구에 답하기 위해 잉태된 것으로 변화된 노동과정에 맞는 시민 재교육과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데 목표가 있음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참여장학금 실험교육을 통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참여장학금 교육사각지대 발굴 및 사업 확대를 실행함

○ 셋째, 참여사회는 시민이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목표가 있음

○ 이를 위해 서울시 참여장학금 플랫폼 개발 및 연계·운영과 참여장학금 이력관리 및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을 수행하도록 함

□ 정책목표

○ 서울시 참여장학금은 공정한 교육의 미래, 위대한 리셋 서울을 비전으로 시민의 숙련향상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공정한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목표로 함

○ 참여동기, 참여소득, 참여사회 등 3대 정책영역하에 6대 핵심과제를 구성하며, 공약사업으로써 민선8기 임기 내에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수립할 수 있음

○ 첫째, 참여동기로서 시민의 숙련향상과 재교육을 위한 미래기초역량센터 운영은 2023년 학습자 1,000명에서 2026년 1만 명으로 확대하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주관 하에 서울시민대학에서 운영함

○ 둘째, 참여동기로서 서울 평생직업교육인증기관 네트워크 구축은 2023년 10개 기관에서 2026년 50개 기관으로 확대하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주관으로 운영함

○ 셋째, 참여소득으로서 서울참여장학금 실험교육을 통한 사업모델 개발은 2023년 시범사업으로 수급자 500명을 목표로 하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운영함

○ 넷째, 참여소득으로서 서울참여장학금 교육사각지대 발굴 및 사업 확대는 2023년 실험교육의 평가를 통해 2024년 수급자 1,500명에서 2026년 3,000명으로 확대하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운영함

비 전	추진목표	6대 핵심과제	정책지표	소관기관
공정한 교육의 미래, 위대한 리셋 서울	시민의 숙련향상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공정한 평생교육 체제 구축	참여동기 시민의 숙련향상과 재교육을 위한 미래기초역량센터 운영	학습자 1,000명('23) → 1만명('26)	서평원(서울시민대학)
		참여동기 서울 평생직업교육인증기관 네트워크 구축	기관수 10개('23) → 50개('26)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참여소득 서울참여장학금 실험교육을 통한 사업모델 개발	수급자 500명('23)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참여소득 서울참여장학금 교육사각지대 발굴 및 사업 확대	수급자 1,500명('24) → 3,000명('26)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참여사회 서울참여장학금 플랫폼 개발 및 연계·운영	플랫폼('24) → 시스템연계('26)	평생교육과
		참여사회 참여장학금 이력관리 및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	사회참여 300명('24) → 1,000명('27)	평생교육과

[그림 Ⅴ-8] 정책목표 제시

○ 다섯째, 참여사회로서 서울참여장학금 플랫폼 개발 및 연계·운영은 2024년에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6년에 관련 시스템에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함

○ 여섯째, 참여사회로서 참여장학금 이력관리 및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은 2024년 사회참여 300명에서 2027년 1,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함

나. 세부사업별 추진내용

□ 시민의 숙련향상과 재교육을 위한 미래기초역량 센터 운영

○ 서울시민대학의 미래기초역량교육 개발 및 운영

- 신기술 발전에 의해 광범위한 일자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시민의 상당수가 ICT 및 신기술 관련 숙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참고로 국제성인역량조사(PIACC)에 따르면, OECD와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50% 이상이 가장 간단한 수준의 전산업무 수행(e-mail 작성, 인터넷 검색)만 가능하거나 이조차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ICT 관련 숙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위협은 저숙련 노동자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함
- 이에 따라 참여장학금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시민들의 기초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습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장학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러한 교육은 참여장학금 운영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서울시민대학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서울시민대학은 저숙련 육체업무, 단순 반복업무에서 벗어나 기술변화 및 직업전환에서 요구되는 기초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ㄹ 시민 대상의 미래기초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함

○ 참여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습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시민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학습경로를 밟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됨
- 참여장학금은 취약계층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고, 학교교육의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므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임
- 이러한 배경에 따라 서울시민대학이 미래기초역량센터의 기능을 갖춰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시민의 장학금 신청을 안내하고,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
- 둘째, 시민 개개인의 교육 수준 및 학습 방향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학습과정을 지도함
- 셋째, 시민의 숙련향상과 재교육을 위해서는 현재의 학습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교육계획 수립을 지원함
- 넷째, 시민학습력진단 도구를 개발(~2024)하여 개인수준을 기반으로 한 교육(멘토링)을 지원함

□ 서울 평생직업교육인증기관 네트워크 구축

○ 서울참여장학금 연계기관 확보 및 인증사업 운영

- 참여장학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습참여자의 급여 지급 유인뿐만 아니라 교육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유인 제공이 중요함
- 교육공급자의 크리밍과 파킹을 방지하고, 교육의 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취약집단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우수교육기관을 확보, 서울 평생직업교육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수단임
- 연계 기관으로는 전기기능사, 용접기능사, 조리사 등과 같은 취업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자격증 취득을 제공하는 직업훈련기관, 신기술을 교육하는 평생교육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기관 인증기준 마련을 통해 심사를 통해 확보되는 게 효과적임
- 최근의 신기술 교육기업으로 사례를 들 수 있는 곳은 클래스101(부캐, 재테크) 탈잉(튜터링) 숨고(숨은고수 전수), 패스트캠퍼스(디지털마케팅, 동영상편집) 코딩야학(현업 엔지니어들의 1:1 조력교육), 라우드소싱(ICT 디자인) 등이 있음

○ 평생직업교육 질 관리를 통한 동기 부양 및 참여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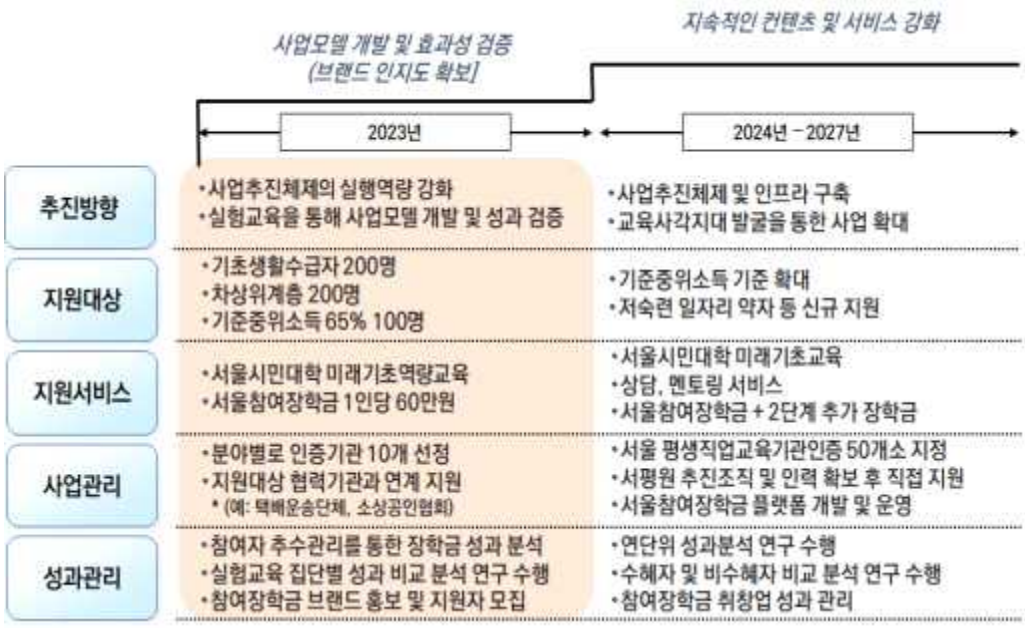
- 인증기관은 서울시와 협약을 통한 커스터마이징 프로그램 개발, 교육급여 수준의 프로그램 공급가를 제공할 수 있음

- 일례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우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일정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때 참여장학금 수혜 대상자에게는 장학금액인 60만 원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를 통해 서울시는 수급자들이 우수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장점을 인식하고 시간 부족 등의 평생교육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가격 수단(학습자 참여 및 이수 완료)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 및 학습참여자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됨

□ 참여장학금 실험교육 및 지속적인 사업 확대

○ 참여장학금 사업모델 개발 및 효과성 검증

- 2023년에는 사업추진체제의 실행역량을 강화하고, 실험교육을 통해 사업모델을 개발 및 성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함
- 지원 대상은 정책목표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 200명, 차상위계층 200명, 기준중위소득 65% 미만 100명 등으로 책정하여 실험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그림 Ⅴ-9] 서울참여장학금 지원 사업 로드맵

-

- 서울참여장학금 실험교육 및 사업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서울시민대학의 미래기초역량교육과 함께 참여장학금을 1인당 60만 원씩 지급하게 됨
- 이 기간에는 분야별로 10개 정도의 우수기관을 교육분야별로 인증하여 교육 효과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자체 역량이 확보되기까지에는 택배운송단체, 소상공인협회 등과 같은 직종단체를 지원대상 협력기관으로 설정하여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됨
- 1단계 사업에서는 참여자 추수관리를 통한 장학금 성과 분석, 실험교육 집단별 성과 비교 분석 연구 수행, 참여장학금 브랜드 홍보 및 지원자 모집 등이 주요 성과관리 방법임

○ 지속적인 컨텐츠 및 서비스 강화

- 참여장학금의 2단계 사업은 서울참여장학금 교육사각지대 발굴 및 사업 확대로 실험교육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과정임
- 이 사업은 참여장학금 사업추진체제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사업 확대를 추진방향으로 함
-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미만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저숙련 일자리 약자에게 신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함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미래기초역량센터를 구축함에 따라 서울시민대학의 미래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참여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습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정착시키게 됨
- 교육인증기관을 분야별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참여장학금 운영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교육지원과의 지원업무 기능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장학금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 성과관리는 연단위 성과분석 연구 수행, 수혜자 및 비수혜자 비교 분석 연구 수행, 참여장학금 취창업 성과관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서울시민 참여장학금 플랫폼 개발 및 연계·운영

○ 참여장학금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시민 장학생 모집-선발과 교육 이수 검증 및 장학금 지급에 이르는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개발(2023)
- 참여장학금 지급 가이드 라인 및 체크 리스트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2023)

○ 교육 프로그램 수급 정보 및 학습콘텐츠 포팅

- 장학금 지원 교육기관 정보,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 신청 등 참여장학금몰 구축(2023)
-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스템 연계 온라인 학습콘텐츠 포팅 등 온라인 참여장학금몰 구축(~2025)

○ 평생학습포털, 서울런, 학습지원 플랫폼 연계·운영

- 평생학습포털 연계(2023), AI학습지원플랫폼 연계(~2024), 서울런 전 시민확대 계획 등과 연계

□ 참여장학금 이력관리 및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

○ 참여장학금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참여장학생의 학습이력을 서울시 차원에서 인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2025~)

○ 기업연계 참여장학 사업 및 학습 후 취업체 지원

- 기업이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참여장학금으로 연계(2025~)
- 숙련향상 후 요구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학습 후 취업제 지원(2025~)

○ 참여장학금 연계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

- 취창업 등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전개(2025~)

참고문헌

강대중(2017). 이슈 페이퍼: 평생학습 바우처.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부처 합동(2021).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 방안.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a). 2020년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b). 평생교육바우처 성과분석 연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c).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정보제공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평생교육바우처 성과분석 연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종욱(2019).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위험과 저숙련 노동자 재교육의 어려움. 월간 노동리뷰, 2019년 8월호, 79-82.

문성호 외(2021). 소득보장 및 사회통합을 위한 청년 참여소득의 도입 방안. 청소년복지연구, 23(1), 157-186.

박윤수, 남재욱(2021). 평생교육바우처 성과 분석 연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반가운 외(2021). AI 시대, 미래의 노동자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변종임 외(2020). 평생교육바우처 성과분석 연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2021). 서울비전 2030. 서울: 서울시청.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실태. 서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2021). 2020년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실태(2021년 조사). 서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수원시평생학습관(2012). 2012년 수원시평생학습동향리포트. 수원: 수원시평생학습관.

이상준(2021). 참여소득, 캐퍼빌리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시민과세계, 38, 107-160.

정동철(2022). 코로나19 시기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실태와 변화. KEDI BRIEF, 12,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SkillsFuture 등 싱가포르 직업훈련체계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권탁(2022). 참여소득을 통한 노동의 확장. 동아법학, 89, 287-316.

Atkinson, A. (1996). The case for a paticipation incomes. The Polictical Quartarly, 67(1), 68-70.

Borjas, G. J. (2021). 노동경제학(8판), 송헌재, 강창희, 박칠성,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ILO. (2019). Work for a Brighter Future.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Lattke, S. (2014). National Progress Report submitted by the Government of Germany. Leibniz, Germany: German Institute for Adult Education.

OECD. (2019). Individual Learning Accounts - Panacea or Pandora's Box?. Paris: OECD.

Pérez-Muñoz, C. (2016). Participation income and the provision of socially valuable activities. The Political Quarterly, 89(2), 268-272.

Riley, M. W., & Riley, J. W.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261-270.

Schleicher, A. (2016). Skills: Global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Ljubljana: OECD.

UNESCO. (2019). Futures of Education: Learning to Become. Paris: UNESCO.

UNESCO. (202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Paris: UNESCO.

World Ecomic Forum. (2018). Toward a Reskilling Revolution. Geneva: World Economic Forum.

The Skills Development Scotland. (2022). SDS Individual Training Accounts. https://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what-we-do/employability-skills/sds-individual-training-accounts/에서 2022. 5. 31에서 인출

서울시 평생학습 교육경비(장학금) 지원방안 연구

관리번호 : SLEI-2022-A-005 / -B553537-000001-01
발 행 일 : 2022.09.
발 행 처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 행 인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편 집 인 : 정책팀장 김혜영
정책팀 하동진
주 소 : (본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도화동) 14층
전화번호 : 02-719-6093
홈페이지 : slei.seoul.kr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